

RM 2017-6-741

# 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Essay Book of Korea-Japan-China CAMPUS Asia Program 2016



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 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Essay Book of Korea-Japan-China CAMPUS Asia Program 2016



비매품  
9 791160 041453 >  
93370  
ISBN 979-11-6004-145-3



RM 2017-6-741

# 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Essay Book of Korea-Japan-China CAMPUS Asia Program 2016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Essay Book of Korea-Japan-China CAMPUS Asia Program 2016



CONTENTS

발간사

006



최우수

-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 행동하는 지성  
이채원\_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Knowing Korean Perspective as Japanese  
Naoki Harada\_도쿄대학교

010

015



우수

- ESSAY for CAMPUS Asia 2016  
Huang Tainyuan \_북경대학교
- 동아시아 화합으로 다시 만나자  
김윤빈\_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원
- 한일중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체험수기  
김은경\_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 천외천(天外天), 넓은 세계를 느끼고, 그 곳으로 한 발짝 내딛다.  
맹현규\_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 장춘에서 만난 작은 기적들  
박윤정\_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원

020

026

030

033

038

# 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Essay Book of Korea-Japan-China CAMPUS Asia Program 2016



## CONTENTS



### 장려상

- 한일중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체험수기 044  
이우연\_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 上海, 중국 대륙을 넘어 세계를 품에 안다 047  
이운정\_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한일중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체험수기 051  
강중순\_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 What kind of Asia do you want to live in? 055  
원동윤\_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낯선 중국에서 이방인이 되다 060  
서청원\_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 오카야마 대학교(일본)을 다녀와서 066  
김연정\_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원
- CAMPUS Asia 체험수기 070  
오혜인\_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원

- CAMPUS Asia 체험수기 075  
박성연\_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 오카야마 대학 캠퍼스 아시아 체험수기 078  
허요한\_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원
- ESSAY for CAMPUS Asia 2016 081  
Ning Yiping\_북경대학교
- CAMPUS Asia 체험수기 085  
허효진\_동서대학교
- 나고야에서의 소중한 경험 089  
송성희\_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 PNU exchange program experience summary report 094  
류시\_상해교통대학교

# 발간사

Essay Book of Korea-Japan-China CAMPUS Asia Program 2016

CAMPUS Asia(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한일중 사업은 한일중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아시아 대학간 글로벌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학생이동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와 함께 5년 간의 CAMPUS Asia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그 성과에 힘입어 신규사업단 9개를 선발하여 총 17개 사업단, 40개 대학과 함께 본 사업으로 확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2016년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참가자 체험수기』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참가자 체험수기 공모전은 동 사업학생이 경험한 우수한 공동 교육과정 및 타문화 이해에서 비롯된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확산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20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스무 명의 열정과 도전이 CAMPUS Asia 본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컨소시엄 대학과 참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CAMPUS Asia 사업이 한일중 3국 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 확대를 모색하여 본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동교육과정, 공동 복수학위 취득, 인턴십을 확대하여 아시아 대표 학생이동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한일중 3국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동 사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허향진**

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최우수**

Essay Book of Korea-Japan-China  
CAMPUS Asia Program 2016

#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 행동하는 지성



이채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고려대 - 고베대 - 복단대)

## 1.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진학하기까지

학부 시절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기업의 사회 참여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 작은 도움 하나쯤은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자연스러운 관심이었다. 관련된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자 마음먹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행동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고 그간의 관심은 정말 피상적일 뿐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졸업 후 NGO 단체 봉사활동과 한국국제협력단 청년인턴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길이라면 본래의 전공과는 약간 다르지만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는 내가 국제대학원 석사진학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2.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지원하다

국제대학원 지원과정에서 내가 꿈은 우선순위는 해외교류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였다. 학부 시절, 교환학생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항상 마음 한편에 남겨져 있었고, 이번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면 훗날에 또다시 후회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캠퍼스 아시아'라는 한·중·일 교류프로그

램이 존재하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목적 그 자체보다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그 동안 조금씩 공부해 왔던 일본어를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었다.

한편, 1학기에 참석한 캠퍼스 아시아 설명회에서 해당 학기에는 6개월 교환학생만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체 대학원 생활의 1/4인 기간 동안 과연 해외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고 싶고 하고 싶은지 고민하게 되었다. 결국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를 한다면, 그래도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진지하게 한 분야에 몰두하고 그 결과로 논문 한 편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다음 학기인 2015년 1학기에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 3. 고베대학 국제협력연구과를 선택한 이유

고려대 - 푸단대 - 고베대 세 학교로 이루어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동북아 지역의 위험 관리와 협력'이라는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 지원하기 전까지는 위험 관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지원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국가는 일본으로 정해놓았

기 때문에,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고베는 과거 한신 대지진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 재난 대응 능력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었다. 이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으면서, 일본의 재난과 관련된 이슈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한국에게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여파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역사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현재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고, 지진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한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는 'disaster management'와 관련된 수업들을 개설하고 있었고,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 내가 궁금했던 분야에 관한 탐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국 또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에서의 수학과정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에 입학하여 국제개발협력력을 두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좀 더 세분된 분야에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는 또다시 정치학, 경제학, 교육 그리고 법학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만약 숫자로 된 자료들을 잘 이해하게 되고 분석할 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이 분야에서 나의 역량이 되고 석사 졸업 후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에서 전공으로 경제학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취득한 일본어 능력 시험 자

격증이 동기부여가 되었다.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닌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이상 좀 더 자연스럽게 잘 구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일본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4. 길면서도 짧았던 고베에서의 1년, 그리고 논문

일본에서의 1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을 말해보라 하면 연구에 임하는 자세라고 말하고 싶다. 주로 교수님과 1:1로 만나서 논문에 관해 이야기하는 한국과는 달리, 고베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지도교수님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 본인의 연구에 대해 발표를 하고, 교수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놀라웠던 점은 단순히 교수님으로부터 모르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 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연구에 대해 먼저 공유를 하고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었다는 것이었다.

한편,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에서 처음 경제학을 접하게 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내가 참석했던 세미나에는 캠퍼스 아시아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에 온 외국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자국에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첫 학기에 세미나에서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어가는 점도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고, 스스로가 해나가고 있는 논문 연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지도교수님에게 발표를 차례를 늦추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교수님으로부터 매 순간 완벽 하려고 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 부족하다고 숨기만 한다면 그만큼 나의 연구는 부족한 채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부터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교수님과 세미나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좀 더 적

극적 연구에 임할 수 있었다. 이는 이후 고려대로 돌아 온 지금 또 다른 논문을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졸업 이후 진로를 탐색할 때 정신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문 이외에도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에서 꼭 해야만 했던 일이 disaster management와 관련된 필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교수님이 지식 전달의 수업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15주의 과정 중 지진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방문하여 현재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볼 수 있었고, 지진과 관련된 센터에 방문하여 한신 대지진 때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 지원금을 이용하여 교수님의 조언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도쿄의 임해방재공원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곳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건설된 곳으로 평소에는 공원이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헬기착륙이나 임시 피난처 같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재난 발생시의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시해 놓았고 누구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단순히 여행으로 도쿄를 방문했다라면 아마 가볍게 구경하고 지나칠지도 모를 장소였겠지만,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니 좀 더 크게 와 닿는 기분이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도 지진이 몇 차례 발생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된 정보를 들을 때마다 앞으로 한국이 대처해 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긴 것 같다.

또한, 고베에는 12월 말쯤 '고베 루미나리에'라는 행사가 있다. 고베 시내에 색색의 전구를 이용하여 조형물을 만들고, 이 조형물이 며칠 동안 길을 밝힌다. 단순한 연말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행사는 한신 대지진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

으며, 자유 모금과 야시장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은 모두 한신 대지진 성금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추모 행사인데 왜 불을 밝히는 축제 같은 것을 하나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밝은 미래를 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한다. 만약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에서 관련된 수업을 듣지 않았다더라면,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저 루미나리에 행사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고, 같은 수업을 듣는 푸단대 학생과 비슷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거창하진 않을지라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동북아 지역의 위험 관리와 협력이라는 목적 달성에 스스로 조금은 다가간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 5. 고베에서의 1년을 완성하기까지

고베에서의 지낸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특히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는 일본 생활을 도와주는 일본인 도우미가 존재해서, 수강신청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부터 물건 구매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도우미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노력하는 중이다.

또한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의 캠퍼스 아시아 사무실과 한국어로 직접 상담할 수 있어서 큰 걱정 없이 고베에서 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한 학기가 끝난 시점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사업 종료 시점이어서 장학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캠퍼스 아시아 사무실에서 적극 나서 주어서 남은 한 학기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다. 한국으로 귀국한 지금까지도, 안부를 묻는 캠퍼스 아시아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다는 생각이 든다.

### 6. 졸업을 앞두고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복수학위 제도는 약 2년에서 2.5년의 기간 동안 두 개의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남들보다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하고, 두 편의 논문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학의 이론적인 부분을 접하고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면서 내가 왜 경제학을 선택했을까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하였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하고 지원서를 작성하던 처음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힘든 순간조차 훗날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스스로 말하면서 버텨 나갔던 것 같다.

현재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고 고려대 국제대학원으로 돌아온 지 약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바로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사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졸업을 위해 기타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하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다. 그래서인지 3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3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고베에서의 생활의 여운이 아직 길게 남아있는 것 같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한·중·일 삼국의 교류 프로그램이지만,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의 문화나 종교 등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똑같이 국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타국에서 함께 공부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외로움 없이 서로 더 많이 의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 누군가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지원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지원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 역시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사회에 먼저 발을 디디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지, 대학원생인데 교환학생을 지원해도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뒤 내린 결론은 만약 이 기회를 놓쳤었다더라면,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고는, 의외로 바로 앞에 기회가 있는데 못 알아챈 것일 수도 있다. 인생에서의 뜻밖의 여정이 될지라도,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인연,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 7. 개선사항

첫째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동북아 지역의 위험관리와 협력이라는 목적 달성이 과연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 관련 수업을 필수로 수강하는 하였고, 비록 시간이 여의치 않아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현장학습도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건보다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미리 공지 받아 학생이 미리 관심을 두고 준비할 수 있고, 교과 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6개월의 교환학생은 오히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만, 1년의 복수학위 학생은 논문 이외의 다른 분야에 쉽게 관심을 보이기가 어렵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로,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일본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고베대에서 어학강의를 들을 수 있었지만, 유효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전공수업과 논문 때문에 어학을 우선순위에 두



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일본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이상 일본어로 진행되는 석사 과정을 듣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P/F 제도의 일본어 전공 강의를 제공되거나, 어학강좌 수강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와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경기불황 속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공통된 고민은 졸업 후 진로라고 생각한다. 현재 고베 대학에서 국제기구로의 인턴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로 교육개발 쪽이어서 나의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관심 분야와 좀 더 밀접한 진로를 찾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동북아 위협관리와 협력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회가 좀 더 제공되었으면 한다.

## Knowing Korean Perspective as Japanese



Naoki Harada 도쿄대학교  
(사업단 : 서울대 - 동경대 - 북경대)

### Why I came to Korea

By one-year Double Degree program, I have been studying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March 2016. Major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Japanese Diplomacy, my motivation to come to Korea was to know the perspectives of Korean people on delicate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in Japan-Korea relations. In other words, I wanted to know why Korean people still have such a strong anti-Japan sentiment and what Japan (and "I") can do in order to improve our relation.

Thinking about Japanese diplomacy, we have similar situations / problems with China, too. However, from Japanese view point, Japan-China relation and Japan-Korea relation should be very different. Japan and Korea share fundamental values such as liberal democracy, rule of law, and respect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China is somehow different for these points. (Here, I'm not arguing which is better, just mentioning differences as the system) Also, in terms of

security, both of Japan and Korea are parts of the U.S. centered hub and spoke security alliance in Asia-Pacific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U.S.-Japan alliance and China have tensions, and we are in a kind of security dilemma. By these points, Japanese people imagine that Japan-Korea relation should be much easier than Japan-China relation.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because of puzzled problems between us such as territorial issue and numbers of historical issues. Even 70 years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even though we share fundamental values, even though both of us are the allies of the U.S, we are still in the difficult situation. Then, I wanted to know Korean people's perspectives on these sensitive issu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tuations more clearly. That is the reason why I chose Korea as a place to study for a year Double Degree.

### What I learned in Korea

In GSIS, I had a lot of opportunities to

discuss historical issues between Japan and Korea in and out of class. Sometimes I felt to hesitate saying own opinion as only one Japanese in the classroom. However, I tried to discuss as much as frankly in many situations because it was my motivation and purpose to come to Korea. Through discussions and dialogues, I came to realize one simple thing that Japanese people (at least I) don't know the history though Korean people know very well.

Korean people are taught what happened in the past during colonialization by Japan and wartime. In school and home, by their teachers and parents, they are taught how much their ancestor were suffered by colonialization and war. However, most Korean people are very friendly to me. They have very future oriented mind, and I feel they love Japanese people and culture even though they know very well about negative aspects of history between us.

On the other hand, Japanese young generations don't know what our ancestors did in the Korean peninsula. We know the facts of colonization and war, but don't know any specific things which actually happened to Korean people. When I talked with one of my best friends in Korea, I was very shocked and surprised by hearing what he learned about colonialization period in elementary school. Because of this lack of knowledge, Japanese people, including politicians, could say some very careless things. Then, Korean people feel bad against it. I understand it's very natural, but I don't know how

to bridge this gap because Japanese people simply don't know the fact. My parents and teachers didn't tell me these things as the way they told me the memories of Hiroshima, Nagasaki, and Okinawa.

Again, I don't know how to bridge this gap between Japanese and Korean people. Because most Japanese people don't know the story, we can't tell it to the next generations. However, I'm sure that I'm fortunate to understand this gap as Japanese, and I have a lot of things I can do. I'm willing to know more about history includ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between Japan and Korea. Now I think sincerely facing the history is the starting point of not only the surface but deep friendship with Korean friends. We don't necessarily need to talk about it, but I want to know in order to understand them more.

In addition to interaction with Korean people, I'd like to specify two things in my studying abroad in Korea by CAMPUS Asia program. For the first thing, I'm writing master thesis on the topic of comfort women issue. When I said I write about this topic, some said maybe I should avoid it because it's too controversial especially as Japanese male student. But I decided to write about it because I didn't want to avoid sincerely facing the history. I appreciate my 3 professors who give me neutral and professional advice on my thesis.

The other thing is that numbers of opportunities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have been provided by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I went to field trip with CAMPUS Asia friends several times, and I learned Korean traditional dance last semester. All these programs were designed only for CAMPUS Asia students, and I really appreciate it. These experiences have helped me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more deeply.

### For the future

I'm Japanese. I'm proud of my country, and I love Japan. At the same time, I'm so proud of being stayed in Korea by CAMPUS Asia program. I love Korean people and culture.

I'm about finishing my one-year studying abroad. So far, I don't know whether I have any chances to live in Korea again in the future. I'm not sure my future job has any relations with Korea. However, Seoul is already one of my hometowns. I will continue to study Korean after going back to Japan. (한국어가 조금 어려웠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I have a lot of Korean friends now, and will make even more. Based on the sincer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I'd like to build future-oriented friendship with them in our generation. Thank you so much for everyone I met in Korea! 감사합니다!

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우수**

Essay Book of Korea-Japan-China  
CAMPUS Asia Program 2016

# ESSAY for CAMPUS Asia 2016



Tianyuan HUANG 북경대학교  
(사업단: 사업단: 서울대 - 북경대 - 동경대)

It was 5 am on August 29th. I woke up from a light nap and raised my head up. My 28in suitcase was still by my side. My flight to Seoul was scheduled at around 8 am. That was the first time I slept on a chair overnight and in an airport. But it was worth it, because I was,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going to South Korea.

Don't get it wrong. I am not a made-in-Korea cosmetic fanatic or K-pop fan. Despite the exhaustion from a restive night, I could still feel my anxiety and hear a little voice mumbling to me about how I spoke more Kiswahili than I did Korean. No. I am not a greenhouse flower who never left home. Instead, I have just finished my one-year long study in Japan before I departed for South Korea. I used to travel to Africa on my own as a volunteer and that was when I picked up a few Kiswahili words, including "Hakuna matata".

That was exactly what I was chanting to myself when I was about to board. "Hakuna matata". I confess, I was overwhelmed by the idea of studying for half a year in Seoul. I was so nervous

that I almost looked hysteric. South Korea is not the first foreign land I have ever stepped my feet on, but it is the first country where I would feel like a total foreigner. An unprepared foreigner. The reason was quite simple. I understand both English and Japanese, so Kenya and Japan didn't strike me much as I was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locals without too much difficulty. But South Korea is totally different. I don't speak Korean, Google Map doesn't really work there, and ordinary people don't usually speak languages I speak.

In a word, I was not prepared for the society I was about to enter. I had little idea about what could go wrong and if so, how to handle it.

Thanks to this overwhelming feeling of powerlessness, I was quite ignorant of the surroundings. Only two and a half months later did I realize that I actually got off at the wrong airport shuttle bus stop on August 29th. Regardless, the shuttle bus gave me my first impression of South Korea and Seoul. On the

small television in the bus, news anchors were discussing about North Korea-judging about Kim Jong Un's image on the screen-and no Korean passenger was paying attention, at all. As a political science major, I felt a little something twitched in my stomach. Chinese people would have more reaction to North Korea's moves and probably got a bit worried about it, but not here. Later my Korean friends told me that was because they were used to DPRK's provocations. It was impossible for a foreigner to comprehend what it feels like to have a sword (or nuke?) of Damocles hanging over your neck. I thought South Koreans would live in constant restlessness, but from the peacefulness in the bus, I underestimated how much human beings can carry. Everyone but me on the bus looked calm, so was everyone on the street. Speaking of which, to my astonishment, the view of streets in Seoul reminded me so much more of Beijing than of Tokyo. Garbage bins, advertisements stuck over here and there, and young folks giggling with coffee and snacks in their hands. I felt freed from the taciturn though demanding decorum of Japan.

As insinuated before, I got off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tion. (yes, I know, should be the next stop) Still a good deal of distance from my destination, I hopped on a taxi with great confidence and showed the taxi driver where I wanted to go. "Seoul National University". I pointed to the large chunk of greenness on the map printed on my SNU survival guidebook-a courtesy from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taxi



driver nodded at me in a confirmative way, then looked at me, waiting. That was before I was able to fully comprehend how large the SNU campus was. So I shrugged, indicating that I was Ok as long as he took me to somewhere that belongs to SNU. As a result, the taxi dropped me off at the front gate where there was a quite impressive gathering because many new graduates were taking pictures with families and friends. I felt like an intruder, honestly, and this-for some weird reason-calmed me down. I guess accepting myself being a foreigner helped me accept my anxiety as well. That was when I encountered the famous cat MoA cat. "The cat doesn't speak Korean. So, if he can enjoy this campus, I can too." I thought. No, I am not kidding you. I did compare myself to the cat I found at the Museum of Art of SNU. I was there on my first day on campus because I got lost. I normally don't get lost. And I never saw the cat again. But somehow his calm poise calmed me down.

It was in this context that I stumbled to find the correct direction and pushed my 23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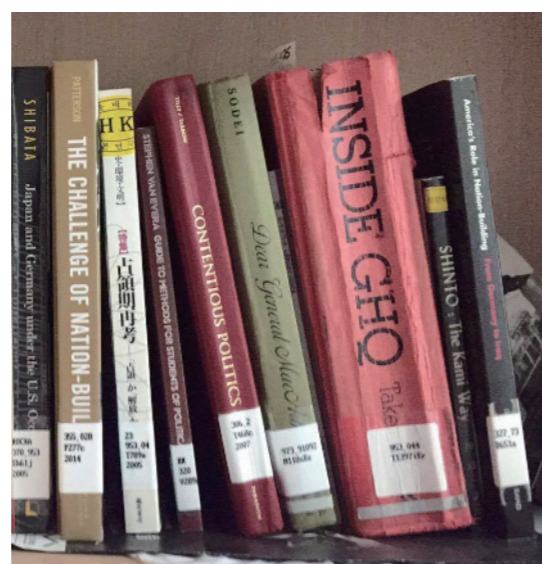
suitcase all the way up into the mountains, to my dormitory, and that was some decent cardio exercise. To top it off, my suitcase was not the only cargo I was moving but also my beddings. Yes, in a huge black plastic bag I picked up from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my department. Imagine this, a foreigner in messy hair, soaked in sweat, looking all hysterically excited, pushing a gigantic white suitcase with her left hand and left knee, meanwhile dragging a huge plastic bag behind her right shoulder. Later on, when I narrated my first day in Korea, my Korean peers laughed and told me the remote location of SNU—which I fiercely complained about—was the result of the old dictators of Korea trying to isolate progressive students and faculties from demanding the leadership’s accountability by marching the streets—like what is happening right now. I haven’t found archival records to corroborate this story, but it makes me feel that my exercise was all worth it. Difficult journeys, especially those up hill, lead one to greatness more often than the easy trips down the hill. Do

they not?

On my way to finishing the last 500 meters before I reached my dormitory building, I saw my share of greatness—the scene of the city down the hill. It was probably already past 6 pm because I could identify a combination of pale orange, red and yellow in the sky and the city down there was covered in this warm, brilliant and soothing light.

A few weeks later, I started to run around the campus, just to admire the mountain sight from all angles. One month later, I started to train myself for half-marathon. I didn’t know I could be this athletic but this is what the scene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 do to one indoor person. It changed how you want to explore the world. With actions. More a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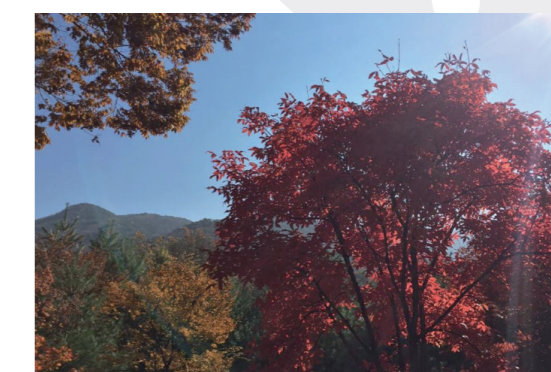
Due to personal reasons, I don’t have leisure time to go out of the campus and “have fun”. I don’t speak Korean, so my social circle is confined to my fellow students i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onestly speaking, the training I have had at GSIS is the best one I have ever had compared to my experiences in the University of Tokyo and Peking University. Nope, not a flattery. Somehow I have been constantly under this impression that my professors are all enrolled in a competition called “annual award

for the most demanding faculty member” and they are all serious about it. I do compare notes with students from the U.S. and Europe, but 200 paged per class plus a report on the reading is very decent training—which I wish I could have had since my first day as a college student. As a graduate, I have my own independent research going on, which makes my working regime quite harsh. Soon, I couldn’t even fall asleep before 2 am even when I managed to finish up at 1 am. As an exchange student, I could only borrow 10 books at most at a time, so I set myself a weekly “rotation rate”, meaning I finish 10 books on my own research every week and replace them with another 10 books in the next week. It was a competition against myself but I survived. It has been over two months after I came here. Now, I am ahead of all my professors’ reading plan and miraculously squeezed out time for my own research.

Frankly speaking, this is the toughest period of my life because I am applying for PhD programs in two different disciplines, trying to top in every class I take, and carrying on my own



research at the same time. You would probably be disappointed by how little I wrote about my cultural experience in Korea. The truth is, I haven't really kicked myself out of my nerdy space to experience enough to be in a proper position to make comments about cultural experience. The second truth is, this is the most rewarding period of my academic life as well. Never before had I been so ferociously focused on academic affairs. Sometimes in my afternoon nap—which I only take because even if I don't, I will pass out at my desk at around 4 pm—I dreamt about new hypotheses and tested them in my head. It was all because that I know I have three battles to fight every week—my professors will always throw challenging questions at me, and I will always enjoy being repeatedly challenged.

Because I don't speak Korean, my interaction with the local people was confined to a minimum level while my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nature was surprisingly maximized. All of a sudden, I was transformed from an indoor person to a passionate outdoor folk. It was the most peacefully delightful time when I was running up along the road, catching every sight of nature fleeting by my side. If you happen to have wandered out in the afternoon and spotted a person in sports gear, sweating and panting heavily, trying to take a picture of a white mushroom buried in the grass, or building a wish-stone tower, and when she was done, she took a huge leap forward and started running—that could be me in the middle of my 10km run.



For someone who had been living in the jungle of concretes all her life, every leaf means something. And when the entire campus walked into autumn with passion, splendor and grace, I found myself couldn't help but spending a great deal of time on recording colors and feeling like David Henry Thoreau.

Yes, as one who is deeply in love with her profession, I am not ignorant of the situations outside campus. I followed updated of the U.S. election and President Park's scandal. But this, here on campus, with all the non-human lives flourishing, I just feel like taking a break to reflect on myself instead of the big political incidents I had been so keen about. All the little lives I had been ignoring for the reason of "being relevant, informed and updated" I now see clearly and with great affection, ironically at the busiest point of my life. Can you imagine that? Today, I went over my album to see what kind of pictures I had taken so I could use some in this essay. Hundreds of pictures I took, most of them are pictures of plants, insects, spiders and fungus. And I feel so relieved by my "re-pivoting" of attention, even it



is bound to be a momentary luxury.

I still don't speak Korean. Most of the times I only have cafeteria food. But I think I will always remember the nature. All the amazing trees and fruits I had never seen elsewhere. Alas! Thinking about that I must leave them in a few months almost brings me sorrow. What if a person could only live for her own soul instead of living to carry the responsibility she feels obliged to carry for the progress in human history? Would she feel less fulfilled?

I am still not a K-Pop fan. I couldn't concur with the beauty standard of the Korean pop culture for it doesn't encourage individuals to respect their body and themselves as the way they are. What I have learned from my life here, instead, was to first be true to myself and question myself, fundamental beliefs about what qualifies as a satisfactory and fulfilling life included. I still remember my first day in Korea more vividly

than any other day. The grass was so green and there was a red dragonfly on a bench. I was so tired after all the "hiking with a suitcase and beddings". Naturally, I stopped to take a break. Spotting that brilliant insect, I took a picture of it. I would always remember that red dragonfly. It doesn't speak Korean. Neither did it have the luxury of flying far into the neon lights down the hills. Objectively speaking, it certainly had missed a lot because it was completely occupied by its academic career. However, if you compare the academic work this dragonfly has accomplished here with those done elsewhere, you would notice that this dragonfly has been growing stronger.

And she gives full credit to her amazingly demanding professors, all the language and cultural obstacles she encountered and every fellow Korean runner who waved/ waved back at her without saying a word. All these made she feel like a stranger, an outsider, and according 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immigration bureau, an alien. However, only after she realized how she stands out, she was able to see her current location and reflect on the trajectory she used to follow.

Now it is time for a bit deviation.

# 동아시아 화합으로 다시 만나자

김윤빈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원  
(사업단: 성균관대 - 오카야마대 - 길림대)



부쩍 차가워진 공기, 짧아진 태양을 느끼며 완연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나날입니다. 몇 장 남지 않은 달력 속 올해의 날짜들을 세어볼 때면, 대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한 해를 떠나보낼 생각에 아쉬움이 남다가도 꼭 일 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한 마음에 가끔씩 기분 좋은 회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교환 장학생으로서 오카야마에 파견되던 날부터 다시 만나자는 수많은 약속을 남긴 채 아쉬운 마음으로 오카야마를 떠나왔던 날까지, 10개월에 가까운 오카야마에서의 시간은 어느새 기억을 넘은 추억이 되어 제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 사계절을 오카야마에서 전부 겪을 수 있었기에 아마 첫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도, 벚꽃이 바람에 휘날릴 때도, 또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때도 오카야마에서의 생활은 언제라도 문득문득 떠오르겠지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고, 때로는 즐거움과 어려움이 공존하기도 했던 오카야마에서의 생활. 이제 오카야마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의 또 다른 시작점에 선 지금, 귀중한 시간이었던 오카야마에서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성취했던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숙했던 부분들은 다시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晴れの国’라고 불릴 정도로 맑은 날씨로 유명한 오카야마. 하지만 오카야마와의 첫 만남은 그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짙은 밤과 세찬 비, 그리고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은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거기에 부족했던 일본어 실력까지 더해 저는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으로 가득한 오카야마에서의 첫날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비구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저는 방 안에 내리쬐는 햇빛을 맞으며 첫 아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문너머로 바라본 오카야마의 모습은 맑음 그 자체였고, 고요하지만 싱그러운 아침의 풍경은 불안했던 제 마음을 온통 설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어제 갖 입국한 우리들을 위해 아침으로 빵을 준비해 준 일본인 룸메이트, 환한 미소로 차근차근 말을 걸어주는 중국인 룸메이트 등 전날의 기우와는 달리 오카야마는 제게 너무나도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카야마는 그 명성대로 맑은 날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고, 저의 유학생 생활 역시도 계속해서 즐거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과제로 밤을 지새우던 날, 여행을 가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하루에 한 끼로 버티던 날 등. 당시에는 힘들었던 기억들도 존재합니다만, 이 같은 기억도 지금은 모두 좋은 밑거름이자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끔

씩 넓게 펼쳐진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며 행복을 논했던 그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오카야마가 제게 한없이 다정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교환학생의 신분으로서 오게 된 오카야마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학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막 도착했을 당시에는 귀국한 지금에 비해 일본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기에 수업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과제나 토론을 해낼 수 있을지 등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진행되는 한국대학의 시스템과는 달리 수기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수강신청 제도나 학교 내 게시판에 중요 사항(휴강, 강의실 변경 등)이 게재되는 일본의 학사 제도 등은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어 수업을 수강하며 일본어 실력이 점차 향상되었고, 또 전공 수업에서는 한국에서 전공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수업을 수강했기에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하는 것도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대학과 다른 각종 시스템에도 적응하게 되어 오카야마에서 맞이하게 된 두 번째 학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자필로 수강신청 종이를 작성하고 매일 학사 게시판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등 커다란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일본어 실력의 향상과 일본 대학 시스템에의 적응은 학업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카야마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일본어 수업을 비롯해 「共通善多言語セミナー2」, 「芸術表象論概説2」의 다수의 일본학생들과 함께 듣는 전공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업들은 한국에서 전공하고 있는 국어문학과 글로벌문화콘텐츠학에 대한 시야를 넓어지게 하였고, 더욱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원으로서 '동아시아 고전학을 통한 동아시아적 문화

공동성의 모색'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中国言語文化学講義」를 통해서 이백, 두보와 같은 유명 시인의 중국 고전을 일본어로 배우는 것이 가능했는데,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라는 결과를 넘어 그 속에서 삼국의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동아시아적 가치를 발견해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3국의 고전 문학에 대해 다각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그 안에 담긴 동아시아적 문화공동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多読で学ぶ日本語」 수업시간을 통해서도 동아시아적 문화공동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또는 중국의 고전을 일본어로 읽어보는 시간, 그리고 일본의 다양한 옛날이야기를 읽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고전문학과 일본, 중국의 고전문학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수업을 통해 삼국의 문학 중에 커다란 맥락은 비슷하나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설정이 다른 이야기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옛날부터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한 교류가 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교환 장학생으로서 오카야마에서 수강한 여러 수업을 통해 고전을 비롯한 삼국의 문학 및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적으로 삼국의 문학을 비교해보는 과정은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과 그 속에서 발견한 공통의 가치를 직접 체득하는 것 역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면입니다. 첫 학기에는 한·중·일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캠퍼스아시아 셰어하우스, 두 번째 학기에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국제 학생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셰어하우스에 입주하게 되던 첫날, 즐겁고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한 공간에

서 살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어하우스에서의 생활은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친구를 선물해주었고, 부족했던 일본어 실력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교환 유학 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어하우스 생활입니다. 수업시간이나 여행 등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어하우스에서 보냈고, 어느덧 편하게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만남의 장소였고, 또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세어하우스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다 같이 모여 청소를 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스스로없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등 가끔은 서로의 국적을 잊을 정도로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유학생으로서의 고충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속 시원히 털어놓기도 하며 함께 공감하고 때로는 조언을 얻기도 했으며, 각국 콘센트의 모양이 다르다는 작은 사실부터 서로의 관심사나 한·중·일 삼국의 문화콘텐츠에 관해 이야기하며 생각을 공유하고 자국의 문화콘텐츠 그리고 상대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세어하우스의 공통어였던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삼국의 언어가 가진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각국의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찾아보는 시간 등을 통해 어느덧 우리는 국적과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서 캠퍼스 아시아라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중·일 삼국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며 서로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같이 여행을 다니며 만들어진 수많은 기억은 공통의 추억이 되어 여행을 마친 후

예전보다 더욱 서로가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감탄하던 기억, 무거운 짐을 들고 오랫동안 걸었던 기억 등,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온 우리는 함께 여행을 하면서 때론 기쁘고 때론 힘들었지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먼 훗날 함께 기억하며 웃고 이야기할 공통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 중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행을 통해 국적을 초월한 우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카야마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학교에서의 수업 등은 저로 하여금 몸소 동아시아적 문화공동성을 느끼고 체험하게끔 하여 주었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의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모습과 행동에 문화적 차이를 느끼기도 했지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끊임없는 교류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면서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서로에 대해 더욱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오카야마에서의 경험은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춰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듯,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을 살아가는 동아시아의 젊은이들이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삼국의 교류 역사를 비롯하여 각국의 다양한 고전 문학 및 문화에 대한 배움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은 동아시아 사회에 길고 깊은 역사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한·중·일 삼국의 화합 및 공동의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삼국 사이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해관계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삼국이 더욱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얽혀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직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동아

시아 삼국 사이의 끊임없는 협력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랩처럼 동아시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동아시아 사회의 구성원들이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동아시아 사회에 존재하는 공통적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긍정적 측면으로 활용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서로의 고전 및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한 탐구는 개별 국가의 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삼국의 공동성을 발견하고 또 이를 토대로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동아시아 삼국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보낸 오카야마에서의 생활은 이처럼 일본어 실력의 향상, 낯선 환경에의 빠른 적응, 견문의 확장 등 개인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 동아시아 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아시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젊은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생이라는 신분의 끝자락에서 있기에 미래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은데, 오카야마에서의 생활은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세어하우스 친구들과 함께 다녀온 카가와(香川) 여행

록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온 지금, 오카야마에서 보낸 많은 시간 동안 직접 보고 듣고 때로는 각국 친구들과 교류하고 고민했던 경험을 저의 전공인 국어국문학 그리고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연계하여, 동아시아적인 문화콘텐츠에 대해 탐구를 하고, 또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의 화합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많이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수학하며 동아시아 화합의 가능성을 보았듯,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동아시아 문화콘텐츠의 세계화라는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간다면 머지않아 이와 같은 목표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아시아 세어하우스 친구들과 함께 만든 크리스마스 케이크



캠퍼스아시아 씨클 학생들과 함께 호떡을 만들어 팔았던 홀키밍데이



# 한일중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체험수기



김은경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사업단 : 서울대 - 히토쓰바시대 - 북경대)

## 1. 들어가며

나는 학부와 석사를 산림자원환경학, 환경생태복원공학을 전공하고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라는 환경부 산하 공기업에서 생태·조경 관련 업무를 10여 년 담당해 왔다. 나의 나이, 국적, 전공, 직장과 직업이 암시하듯, 역사·문화·철학과 같은 사회적 이슈보다는 과학과 논리를 추구하는 이과생의 특징과, 개발보다는 보전을, 경제보다는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보전론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에 근무하다 보니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각으로 살아온 나였지만 작년부터 수학하게 된 서울대학교 SMBA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와 경영분야로 인식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 8월 수강한 DBiA 프로그램으로 경영의 배경을 중국, 일본으로 확장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경영환경과 다양한 산업, 사회문화까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DBiA 프로그램이란 Doing Business in Asia의 줄임말로 중국의 베이징대학교, 한국의 서울대학교, 일본의 히토쓰바시 대학교의 경영대가 협력하여 MBA 재학생들에게 제공하는 2주 과정의 한중일 집중교류 프로그램이다. 각 대학에서 선발된 10명의 학생, 총 30

명의 학생이 3개국의 수도인 북경, 서울, 도쿄를 순회하며 각국의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이다.

단순히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동기로 출발하게 되었지만, 2016년 8월 9일부터 24일까지 총 16일간의 여정을 통해 중국과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장벽과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 2. 프로그램 내용 및 느낀 점

DBiA 프로그램은 북경, 서울, 도쿄 순으로 각 5일씩 체류하며 강의와 현장견학 문화체험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북경(북경대)	서울(서울대)	도쿄(히토쓰바시대)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rban Entrepreneurialism</li> <li>China's Urbaniz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hange and Prospects of Cities and Regions in South Korea</li> <li>Transformation from Mega to Smart Sustainable Cit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enturesome Tokyo</li> <li>Cool Japan</li> <li>Roppongi Hill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derstanding Chinese Consumer</li> <li>Reaching Chinese Consum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li> <li>Samsung Way</li> <li>Business in Korea and Bridging the Cultural ga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rvice Management</li> <li>Starbucks Japan</li> </ul>

기업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 Driving</li> <li>JD.co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ver</li> <li>CJ E&amp;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tsubishi Real Estate</li> <li>Tokyo Railway</li> <li>Yamato Haneda Chronogate</li> </ul>
문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리장성</li> <li>지금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현대미술관</li> <li>삼청동 거리</li> <li>뮤지컬배방관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도도쿄박물관</li> </ul>

2016년의 DBiA 프로그램 주제는 “BeST: 메가시티 경쟁과 협력”이며, 도시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가는 도시의 미래환경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는 것이 주 활동이었다. 따라서 강의와 기업방문, 문화체험은 이러한 주제와 연계성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각국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다룬 강의와 활동, 팀프로젝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노령화, 인구절벽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 기회로 작용할지, 위기로 작용할 것인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았다. 특히 현재까지는 한·중·일을 언어와 문화가 다른 각각의 국가로 여겨져 왔다면, 이제는 3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각국이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된 목적지로 여겨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어나 사회 문화적 장벽이 있지만, 발달된 IT 기술을 이용하여 각국의 거리를 좁혀갈 필요가 있다. 또한 각국의 입지적 특성, 인적자원의 구성, 중점사업 등의 차이에 따른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잠재력, 한국의 막강한 IT 인프라, 일본의 서비스산업 등의 강점을 융합하여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기업 방문 시 각 기업이 전통적인 사업영역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점이 흥미로웠다. 중국의 대리운전 앱을 개발하는 회사는 서비스 교육을 받는 직원이 5분 안에 현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평상시에는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조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CJ E&M의 경우 과거 설탕제조회사에서 미디어 사업에 확장하여 한류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도 소비자의 취향을 인지하고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또한 일본의 택배사인 Yamato Haneda Chronogate는 물류배송에 사업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물류거점에 전자제품 수리, 인쇄, 의료기구 세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한 택배사업에서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변화하는 세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자원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업의 혁신모델이 귀감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체험을 통해 역사유적을 방문하고 박물관, 뮤지컬 관람을 하였다. 역설적이게도 문화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층, 연령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기에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특징은 어떻다고

정의 내리기 힘들었는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적 교류가 있어왔기에 문화, 사회 곳곳에 녹아 있는 그들의 문화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과의 역사적, 정치적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범위를 점하고 있고, 그 영향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현상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중심의 입장에서만 서다 타국의 영향, 제3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고 객관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다.

## 3. 본 프로그램이 학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

MBA 과정 마지막 4학기를 앞두고 졸업을 염두에 두며 ‘이제 더 이상 공부는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동안 학교를 다닌다고 가족들을 챙기지 못했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끝난 후 실생활과의 연계성을 크게 찾

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런데 DBiA 참가 이후 그 동안 내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 사회적인 일에 무관심했다는 점이 안타까웠고, 외국어를 통해 더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 인문, 사회, 역사분야에 관심영역을 두고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이 무엇인지, 국가별 환경에 따라 차이점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해 볼 생각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한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한자와 일본어, 중국어를 순차적으로 배울 생각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에서의 나의 입지는 생태조경분야로 한정되어있었던 것 같다. 해외사업, 경영전략 등에도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위기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전략적인 방향을 고민해 볼 생각이다. 내부의 직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외부에서 숲을 보며, 시장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전문가가 되어야겠다.

#### 4.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과 일본의 진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15 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그 국가의 사회구조와 경영환경, 강점 등을 파악하고 중점사업 기업 방문을 할 수 있었다.

이는 확산적 사고, 주변에 대한 호기심 및 배경과 맥락의 이해를 도와주었다. 또한 BeST Alliance 대학의 경영대 학생들과 보낸 시간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자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긴밀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업무관계에서도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해는 개인간, 기업간, 국가간 발전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증폭될수록 사업발굴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강의와 교재로 다양한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만,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한중일 3국의 협력으로 학생들과 교수진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이 지속되어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캠퍼스아시아사업단에 속한 대학의 학생이라면 교류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끝으로, 알차고 밀도 있는 DBiA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캠퍼스아시아사업단 그리고 각 대학교의 교수진과 행정실의 진심 어린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천외천(天外天),  
넓은 세계를 느끼고,  
그 곳으로 한 발짝 내딛는다.

맹현규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  
(사업단 : 성균관대 / 서울대 - 나고야대 - 칭화대 / 인민대 / 상해교통대)



#### [들어가며]

- 인생의 전환점이 된 CAMPUS Asia

2015년 11월 말, CAMPUS Asia 사업단 공고가 떴던 약 1년 전 쯤의 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중국어 스터디그룹 속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중국어를 배워두면 어디든 쓸 곳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생각없이 바로 앞의 할 일들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그때의 꿈은 판사 혹은 변호사, 또는 교수가 되는 것. 대학에 들어온 지 2년, 그 때까지도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지, 어떤 법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풋내기 대학생이었다. 이렇듯 평범하게 한국의 로스쿨을 지망하고 있던 1년 전의 나는, 현재 한중일 3국을 기반으로 한 세계 속의 국제중재법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본에 온 지 8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가 살고 있던 세계는 그 8개월 동안 크게 요동쳤고, 나의 진로의 방향과 생각, 모든 것이 8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본래는 한 학기만 지원했었지만, 한국과 일본에 계신 교수님들과 박사님덕택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어 현재까지 일본 나고야대학

교에서 수학하고 있다. 부족한 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많은 선배들의 영향과 조언 아래서 CAMPUS Asia 사업단에 지원했기에, 이러한 수기를 통해 CAMPUS Asia 사업단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안주와 도전 사이의 갈림길]

- 우연으로부터 온 인생의 전환점

솔직하게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의 CAMPUS Asia 사업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우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 가을학기에 나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교환학생으로는 6개월만, 유럽을 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다. 11월 말, 때마침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던 CAMPUS Asia 사업단의 추가모집 공고를 보고는 기말고사 준비와 함께 고민도 같이 시작되었다. 중국 쪽의 CAMPUS Asia 사업단은 아쉽게도 모집하지 않았고, 일본 나고야대학교만 모집을 했는데, 그 때까지는 나고야란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고민은 더 깊어졌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바쁘게 CAMPUS

Asia 사업단에 참여했던 선배들과 약속을 잡고,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반 교환학생과는 다른 장학금 제도, CAMPUS Asia 사업단 내의 끈끈함, 그리고 한국에서만 듣는 법 과목이 아닌 영어로 배우는 국제법이나 비교법과 같은 다양한 법 관련 과목들 등 여러 장점을 들다보니 CAMPUS Asia라는 사업단이 내게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되었다. 또, 지원서를 쓰면서 나고야대학교 CAMPUS Asia 사업단에 대해 알아보면서 일본에 가게 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점점 확신이 들었고, 미래에 한국에서 로스쿨을 목표로 하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기말고사 준비와 함께 준비하느라 많이 부족했는지 모르는 지원서를 담당 박사님과 교수님들께서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받아 주셨고, 나의 새로운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인간적, 학문적 성숙**

- 일본인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처음 나고야 추부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는 마침 저번 학기에 CAMPUS Asia 사업단으로 한국에서 수학했던 일본인 친구였다. 내가 일본어를 거의 못함에도, 그 친구의 한국어가 워낙 출중하여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림 1 일본인 멘토들을 초대해서 한국요리를 대접하기도 하였다.



그림 2 기숙사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파티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파티 중 하나였다.

에 만난 또 다른 CAMPUS Asia 친구는 중국에서 수학한 CAMPUS Asia 학생이었지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서 금방 친해졌다.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CAMPUS Asia 사업단을 경험한 친구들로부터 첫 학기동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함께 불꽃놀이를 가거나 시간날 때 밥도 같이 먹으며 지낼 수 있었다. 이렇듯 CAMPUS Asia 사업단의 친구들은 서로의 언어나, 영어를 통해 같은 CAMPUS Asia 사업단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며 빠르게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일본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 특히 나고야대학교 CAMPUS Asia 사업단에서는 멘토멘티 제도가 있어서, 1주일에 1시간 정도 서로 만나 문화 교류 및 언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주일에 1시간은 사업단에서의 추천 시간일 뿐이고, 어떤 친구들과는 시간 외에도 또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더 친해지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이런 멘토멘티 제도 이외에도 연구견학(Research Trip) 등을 통해 CAMPUS Asia 사업단의 여러 기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나중에는 친구들을 기숙사로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등 우리끼리의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이 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 또한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일본은 한국보다 아직 인터넷망이 넓게 퍼져있지 않아,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2016년 봄학기부터 학생들에게 배정된 기숙사는 3층 건물임에도 와이파이를 1층에서만 쓸 수 있어서 불편함이 부각되었었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하기 위해 1층에 모이는 친구들과 서서히 친해지면서 1학기동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많은 친구들과는 부족한 일본어로 소통함에도 깊이 친해져서 부엌을 지나가다가 자신들이 한 요리를 먹어보라는 것에서 시작한 갑작스러운 파티부터, 각국 요리를 직접 해서 나눠먹었던 포트럭파티,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는 함께 계획하여 다녀온 간사이 지방 여행까지, 이런 경험들은 몇 개월이 지남에도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여러 개 받은 느낌이었다. 이 선물들을 연장을 한 지금까지도 간직하여, 그 때의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퇴실한 지금까지도 연락하며 만나는 각별한 사이까지 될 수 있었다.

- 한국법, 일본법, 그리고 국제법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에 재학하면서, 법학과 관련한 전공들을 들을 수 있어 기본적인 법학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었음에도, 과거 법학부와 비교해서 그 내용의 양이나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법학부가 존재하는 나고야대학교로의 수학회는 학부생으로서 법을 좀 더 깊고 넓게 배울 수 있는 확실한 기회였다. 그렇기에 일본에 가기 이전부터 무엇을 배울 지에 대해 기대감이 컸었고, 나고야대학교의 수업들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일본의 법학부는 우리나라에서의 법학과 정치외교학부의 전공수업들을 합친 성격이 강하기에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과 관련한 수업들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나고야대학교 법학부의 수업도 수강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CAMPUS Asia 사업단은 영어로 된 강의를 기본으로 한다. CAMPUS Asia 사업단으로 와서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은 G30라는 학부프로그램의 수업들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은 법학과 정치학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하되, 그 이외에도 경제학이나 통계학 등 영어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강의들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들을 영어로 수강할 수 있었다. 또한 CAMPUS Asia 사업은 법학대학원 강의에 남는 자리가 있다면, 법학대학원의 수업까지 수강할 수 있어 강의의 선택권이 매우 넓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2016년 봄학기 동안 필수과목을 포함한 8과목과 여름 계절학기로 들은 1과목을 통해 법학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넓힐 수 있었다. 일본법 개론은 물론, 비교헌법 수업을 들으며 한국과 일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의 헌법 사상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원 수업을 통해 WTO와 국제경제법에 대한 기본을 배우면서 대학원생들의 깊은 지식과 한 가지 논제에 대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 또한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나고야대학교에서 수학한 CAMPUS Asia 학생들 중에는 처음으로 여름 계절학기 강의도 수강했는데, 현재 법률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ASEAN의 법률체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학점보다도 많이 들었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학부생으로서 제한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주제에 대해서 넓고 깊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가치 있었던 시간이었다.

CAMPUS Asia 나고야대학교에서 한국의 민법, 헌법, 형법이나 상법 등 한국의 법, 법률들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는 없었지만, 비교법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의 법, 법률들을 직접 조사하며 한국의 법에 대해 배우고,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법들까지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을 들을 수 있었다.

-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기회

2015년 여름, 아무 것도 모르던 나는 친한 친구들과 5명을 모아 무작정 “제6회 WTO, FTA 국제경제법 대회”에 나갔다. 제안서(Memorandum)나 구두 변론

(Oral Pleading)의 준비에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본선에 나가 구두 변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값진 경험이었다. 특히 국제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지원했음에도, 친구들과 함께 조사를 하며 국제경제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힘들지만 즐거웠던 시간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CAMPUS Asia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가장 큰 수확은 이런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진지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나고야대학교에서의 수학을 1년으로 연장하고, 일본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인턴십의 기회가 있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 인턴십을 신청하면 일본법과 관련한 법률사무소에 배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우연하게도 국제계약을 다루는 법률사무소에 첫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2주라는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 동안 변호사님을 따라 세미나와 미팅에 같이 들어갔고, 주어지는 영문계약서의 내용들을 정독하면서 국제법을 활용한 국제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인턴십의 기회만이 아니라, 수업에서도 국제법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다. 2016년 봄학기 동안 들었던 여러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 중 하나가 "Special Problems(Comparative Private Law)"라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을 담당하신 교수님께서도 국제법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겨 이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님이 되신 분이셨다. 그렇기에 변호사로서 직접 담당한 소송을 예시로 들시며 현실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을 함께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 이 수업에서 다뤘던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는 유럽과의 무역에서 주로 쓰이는 국제법이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 때문에 첫 수업에서 수업을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나갈 뻔

했던 해프닝도 있었다. 한 학기 만에 한 가지 법률 체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수업과 함께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자료를 통해 독학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의 다른 수업에도 관심이 생겨, 그 학기에 교수님의 다른 수업으로 국제중재법이란 과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과목을 듣고 있었던 친구를 통해 그 수업의 자료를 받아 혼자서 공부하였다.

그러던 중, 다음 학기에 나고야대학교의 대표로 CISG를 활용한 "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라는 국제중재법 대회에 나가는 학생을 모은다는 공지를 보고, 저번 학기에 공부한 배경을 토대로 지원하게 되었다. 만약 된다면, 연장을 한 6개월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예를 들어 일본어공부나 일본문화 체험을 위한 여행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한국에서 로스쿨생들에게 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학부생은 얻기 힘든 기회였다. 그리고 분명 학부생으로서 사례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직접 책을 찾아보며 논리를 만드는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 만큼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이 있었다. 지원서와 함께 인터뷰까지 보고, 그렇게 나고야대학을 대표하는 팀의 유일한 학부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팀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참여하는 중이다. 학부생으로, 적은 경험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국제중재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에 힘들어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유이다.

나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CAMPUS Asia 사업단으로 나고야대학교에 올 수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계속 학부수업만으로 공부했다면, 이렇게 대학원생들과 함께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며 풍족하게 일본의 문화를 즐기고, 일본법, 비교법과 국제법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나의 1년 전 과거를 생각한다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잡지 못해 장기적인 생각 없이 근시안적으로 내 눈 앞의 일들만 하며 지내지 않았을까, 지금과 같은 넓고 확실한 생각을 갖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다.

#### [나가며]

- CAMPUS Asia를 통한 나의 도전은 진행형

우연한 기회로 만났던 CAMPUS Asia 사업단. 하지만 지금 사업단은 내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렇게 바뀐 미래를 위한 많은 경험을 선물로 선사해주었다. 대학교 또는 한국에 제한되어 있었던 나의 생각과 꿈을, 세계를 대상으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고, 새로운 세계에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모든 CAMPUS Asia 사업단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도, 똑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CAMPUS Asia 사업단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배우며 열정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수학하며 내가 어떤 기회를 잡고 싶을 때, CAMPUS Asia 사업단은 그 시도를 막기보다 항상 응원해 줬으며, 나를 위한 최대한의 기회를 열어주려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내가 그 기회를 잡고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의법정 대회로 인해 4월 초까지 있는 나로서는 8개월의 생활을 해 왔고, 이제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8개월 동안 많은 것을 느끼며 내적, 외적으로 바뀐 것도 많았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 나의 미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점점 명확해져 갔다. 나는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일본에서 시작한 일들을 잘 마무리 지으며 이후에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미래를 하나하나 실제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그렇게 안주하고 있던 알을 깨고, 나고야대학교에서의 천외천을 향한 한 걸음을 시작으로, 나는 이제 나의 미래를 향해 더욱더 큰 발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 시작했다.

# 장춘에서 만난 작은 기적들

박윤정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원  
(사업단: 성균관대 - 오카야마대 - 길림대)



## 0. '장춘'에 대한 나의 첫인상

장춘이라는 곳은 내게 특별한 곳이었다. 인생이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나 또한 가끔은 기적처럼 그런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남들이 보기에 조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낭만적으로 여겨질 법한 생각을 진심으로 믿게 만든 곳이었다. 사실, 장춘에 가기 전까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 처음 캠퍼스 아시아에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중국 교환학생은 장춘으로 간다는 걸 보고 '장춘이 어디지?'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검색창을 쳐서 검색해보았다. 이내 '장춘' 두 글자 아래에는 희색빛 삭막한 도시의 풍경들이 뜨고,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간다는 무시무시한 정보가 눈에 들어왔다. 최종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그 얘기도 장춘에 대한 인상을 더 나쁘게 만들면 만들었지 결코 좋게 만들지는 않았었다. 인터넷 블로그로부터, 중국에 오래 사셨던 중국어 선생님으로부터, 또 먼저 다녀간 선배들로부터 생활 부분이나 치안 등의 부분에서 딱히 긍정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이다. 장춘에 간다고 하니 친구들을 우스개소리로 장기를 조심하라고 하기도 했다. 그렇게 낯설고 황량하고 서늘한, 조금은 무시

무시하기도 한 느낌이었다. 장춘에 가기 전 장춘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 1. 첫번째 기적 - 중국어 병어리가 중국어 번역을 하기까지

장춘에서 만났던 첫 번째 기적은 중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중문과도 아니었고 과에서 진행되는 '양현재' 수업에서 주 2회 중국어 수업을 듣긴 했지만, 수업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시험을 봤을 뿐, 중국어를 공부하는 데에 특별히 열정을 쏟지는 않았었다. 양현재 수업이 끝나던 12월, 내 실력은 수업 시간에 풀었던 HSK 모의시험에서 HSK2급을 간신히 통과할 정도였다. CAMPUS Asia 면접에서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3월 초의 내 중국어 실력은 정말이지 형편없었다. 처음 장춘에 왔던 3월,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다같이 눈발을 자박자박 걸어서 길림대 외국어학원 건물에 갔다. 길림대 한국어과 학생들이랑 언어교류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 날 교실에서 첫 대면을 하고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한 뒤에 학교 내의 식당으로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이날 나는 한 문장에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중국어도 영어도 아닌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 2. 두번째 기적 - '중한산업원(中韩产业园)에서의 3개월 간의 인턴생활

장춘에 있는 동안 중한산업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인턴생활을 했다. 장춘에서 보내게 된 특별한 이번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낼까하고 고민하고 있던 학기 초에 한 선배가 중한산업원이라는 곳이 있고 지금 인턴을 뽑고 있다고 한 번 지원해보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인턴설명회에 참가했고, 흥미로운 곳이라고 느껴서 미숙한 중국어 실력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써서 냈다. 중국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적 같게도 서류전형에 붙었고, 면접을 통과해서 3개월 동안 중국에서 인턴을 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중한산업원에서의 인턴이 내게 기적이었던 이유는 한두가지로 간추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처음으로 출근과 퇴근이라는 것을 하는, 직업세계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고, 중국인들과 더불어 일하는 경험을 했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유를 굳이 꼽자면, 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배웠기 때문이다. 인턴경험을 하기 전에 '일'이라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항상 너무 아득했다. 하지만 인턴을 하면서 변호사님께 현재의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이런 저런 강의를 들으면서 '일'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대학생의 입장에서 '취업'이라는 그 관문까지만 생각했다면 인턴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하게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현재 어느 곳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거치며 결국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나 자신에게 좀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묻게

내곤 했었다. 그 중에 한 한국어과 1학년 학생이랑 친해져서 가끔 둘이서 밥을 먹곤 했는데 우리는 중국어를 하다가 한국어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둘 다 부족한 각자의 외국어 실력을 통감하며 영어로 얘기를 했던 웃지 못할 일들을 겪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좋은 자극제가 되어서 중국어공부에 더욱 집중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다.

처음부터 부족한 중국어 실력을 통감하고 있었고, 5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도 알고 있었다. 또, 빨리 실력을 늘리고 싶은 마음에 수준보다 높은 중급1반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매일 예습, 복습을 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그 책들을 보면 책이 까맣다. 기본적인 단어조차 몰랐기 때문에 본문 해석을 하려고 하면 거의 모든 단어를 다 찾아봐야했기 때문이다. 슈퍼에서 과자를 살 때도, 택시를 탈 때도 모든 순간 순간이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고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처음에 중국에 와서 부족함을 통감하며 의지를 다졌던 것에 비해서 학기 후반 후에는 그런 의지가 다소 흐지부지되기는 했었다. 또 여전히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길림대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던 선생님들과 슈퍼, 기차역, 택시 등 곳곳에서 마주쳤던 생활 속의 나의 중국어 선생님들, 같이 밥먹고 채팅하면서 서로 공부를 도와줬던 길림대 한국어과 학생들, 그리고 중한산업원에서의 통번역수업 및 업무를 하면서 배웠던 부분들 덕분에 중국어 실력은 나날이 조금씩 늘어갔다. 결국 나중에는 인턴 업무를 하면서 중한번역 업무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의 도움을 받으며,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해나갔고, 결국에는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해낼 수 있다는 게 놀랍고, 문맥을 파악하는 번역센스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때의 뿌듯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되었다. 단순히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거나 하는 생각이 아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로 내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달라진 것이다. 즉,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가 아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사회에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게 되었다. 이렇듯 '일'에서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대표님께서 인턴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곤 하셨는데, 대표님과 대화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대표님께서 젊은 시절 중국의 한 공장에서 직원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으셨다. 그 때 대표님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공장 직원들 한명 한명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시고, 이 회사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그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회사는 그 제품으로 인해 크게 이익을 보았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셨다. 비록 사소한 업무를 하는 인턴이었지만 더 넓은 시야로 회사를 바라보고 큰 그림 아래에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내 업무뿐만 아니라 이 회사,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 회사가 있는 넓히고 넓은 주변 관계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로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면서 배우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얻었다.

### 3. 세번째 기적 -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트이다.

장춘은 중국의 동북지방에 위치해 있다. 장춘에 가기 전까지는 중국 동북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무지무지 촛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장춘에서 한 학기를 보내는 동안 하얼빈, 옌지 등을 여행하면서 이곳은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북경에 있는 지금도 '퐁페이'라

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울렁인다. 기차를 타고 두루먼에 갔던 일, 두루먼에 도착하는 순간 사방에 적힌 한글에 순간 멍해졌던 일, 두루먼에서 조선족 택시기사 아저씨와 담소를 나누며 아저씨가 안내해주는 대로 국경지대를 구경했던 일, 일송정에 올라 해란강과 넓고 푸르게 펼쳐진 용정의 평야를 보면서 웬지 모르게 가슴이 떨렸던 일 등이 머릿속에서 마구잡이로 튀어 오른다. '퐁페이'라는 말이 마치 내 마음 속의 어떤 버튼을 누르기도 한 듯이 말이다.

먼저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백두산을 여행했을 때 얘기를 해보려 한다.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먼저 두루먼으로 갔다. 첫째날 두루먼을 둘러보고 저녁 때 옌지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옌지-延吉; 연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 가장 큰 도시-를 베이스캠프 삼아서 백두산과 국경 마을인 두루먼을 구경할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할 때는 옌지는 백두산과 두루먼을 여행하기 위해서 넣게 된 곳이었다. 그런데 그 옌지가 나의 예상을 뛰어넘고 백두산보다도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단순히 강렬한 인상뿐만이 아니다. 한반도 역사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옌지 여행은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할 정도로 옌지는 한 학기 간의 장춘 생활에서 가장 선명하고 또렷한 인상을 나에게 남겼다.

기차에서의 3시간 남짓의 시간이 지나고 두루먼에 도착했을 때, 기차 안에서 또렷한 한국어로 안내방송이 들렸다. 묘한 느낌을 받으며 기차에서 내려 도착한 기차역은 한술 더 떴다. 사방에 온통 한글이 있었다. 나가는 곳, 화장실, 편의 시설 등 역내 모든 안내판에 한글이 중국어와 함께 표기되어 있었다. 순간, 한국의 한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잠시간 멍해졌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기차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서 버스를 타야하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아저씨 한 분께서 다가왔다. 아저씨께서는 한국어로 혹시 한국인이

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다른 한족 택시 기사들보다 더 싸게 해준다는 자기 택시를 타라고 했다. 그 동안 택시기사분들과 중국어로 소통하느라 다소 힘들었는데,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훨씬 수월했다. 처음에는 시내까지만 이 택시를 타고 갈 생각이었지만 이후 이 조선족 택시기사분과 한나절 동안의 여행을 함께 하게 된다. 두루먼에는 특별한 다리 하나가 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노란 선으로 다리 중간에 표시되어 있는 다리이다. 그 노란 선 하나를 경계로 북한과 중국이 나뉜다. 나는 아쉽게도 노란선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강 너머로 북한의 집단농장 등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다. 북한 땅을 본다든 것도 굉장한 낯선 경험이었지만, 내게 더욱 인상깊었던 것은 근처에 조성된 조선족 민족 박물관이었다. 그곳에는 전통 혼례방식이나 추석, 설날 등의 풍속, 한민족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전시해놓은 곳이었다. 비록 한국어영토가 아닌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켜왔으며 그런 노력으로 이러한 박물관까지 지었다는 게 나에게 정말로 인상깊었다. 무언가가 딱하고 머릿 속에 꽂히는 느낌이었다.

이전까지 이곳은 장춘이나 다른 도시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중국 땅이라고 생각했었다.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중국 영토라고 생각했었다. 조선족이라고 해봤자, 한국어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들은 나에게 충분히 이질적이었고, 나는 쉽게도 그들을 그냥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땅에서 살고 있고 국적도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두루먼과 옌지 등을 여행하면서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국문화까지도 많이 반영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을 단순히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더욱이 용정에 갔을 때는 웬지 모를 무거운 감정을 느꼈다. 마치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같은 감정이었다. 운동주 시인의 모

교인 용정중학교에는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했던 운동주 시인 및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등을 전시하고, 그들을 잊지 않도록 후대에 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곳, 이 낯선 땅에서 만난 한국어와 그리고 그 한국어로 운동주 시인과 독립운동가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분들. 그리고 나서 오른 일송정에서 해란강이 정말이지 '금빛'으로 일대 평야를 감싸흐르는 풍경을 보면서, 그 멀리 멀리 뻗어있는 지평선을 보면서 생각했다. 또렷한 국경의 표시가 없던 시절에 이 넓은 평야가 펼쳐진 이 평화로운 곳으로 온 그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소박하고 조용한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평탄하고 비옥한 땅이 넓게 펼쳐진 이 땅에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집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었을 그들을. 쌀밥과 김치같은 평범한 반찬들이 놓여있는 밥상을 마주하였을 그들을. 그러다가 이 마을의 선남선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는 곁에 전통혼례복을 차려입고, 이 마을은 한바탕 정겹게 우리네 혼례방식에 따라 혼례를 치렀을 그들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떠나왔던 남쪽으로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경계가 생겼고 그렇게 조선족으로,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 불리게 된 그들을, 생각했다. 이 때의 여행 이후 중국의 동북지방은 나에게 단순히 중국의 '퐁페이'일 수가 없었다. 장춘은 이렇듯 나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기적을 만나게 해주었다. 아직도, 나는 일송정에서의 그 두근거림을 잊을 수가 없다.

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 장려

Essay Book of Korea-Japan-China  
CAMPUS Asia Program 2016

# 한일중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체험수기



이우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사업단: 서울대 - 히토쓰바시대 - 북경대)

## Introduction: About Doing Business in Asia

3주간 동아시아 3국을 방문하는 일정의 Doing Business in Asia (이하 DBiA)는 각국을 대표하는 대학교의 MBA 학우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며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의 서울대학교, 중국의 북경대학교 그리고 일본의 히토쓰바시대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과정입니다. 그 열정 가득했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 Chapter1: 쉽지 않은 중화통(中华通)으로의 길

10년 해외펜팔로 결혼에 골인하신 부모님 덕에 가정에서는 물론 어려서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외갓집을 드나들며 다양한 문화, 음식 그리고 영어, 중국어 등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중·고 등과정은 싱가포르, 대학과정은 호주, MBA 기간 중 홍콩에서의 교환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특히 중화권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경영이라는 주제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어본 적은 드물었습니다. 금번 Doing Business in Asia에는 중국의 북경대학교, 한국의 서울대학교 및 일본의 히토쓰바

시대학교의 MBA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북경의 경우에는 학업을 위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닌, 전원이 중국 현지인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북경을 비롯하여 중국의 '젊은 도시' 심천에서부터 흑룡강성, 사천성, 호북성, 내몽고 등 중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참여하였기에 보통어(putonghua)의 발음도, 지역 별 사투리와 문화도 달랐습니다. 중국은 넓고, 아직 아는 것 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몸소 깨달으며 북경대학교 MBA 학생들로부터 각 지역 별 농담, 음식 및 문화의 차이까지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하루 종일 함께하며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민감한 정치이슈 및 중국의 내수시장을 바라보는 솔직한 견해까지 표본 수는 적지만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저로써는 중국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Chapter2: Welcome to Korea 그리고 올림

북경을 떠나는 날이 되자 북경대학교 및 히토쓰바시대학교의 학생들이 너도나도 휴대폰을 내밀며 '이 제품은 어디서 사야 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니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하고 있거나, 제법 입소문이 난 화

장품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냐고 물으니 '온라인이나 친구를 통해서', 또는 '아내가 부탁해서' 라는 답변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한류열풍을 실감하게 되어 어깨를 잠시 으쓱거리기는 했지만, 국내 비인기 제품이 과대 포장되어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IT 강국답게 모두를 놀라게 했던 것은 빠른 인터넷 접근성과 속도였습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바일뱅킹 및 각종 어플리케이션 광고들은 한국을 처음 방문해 보는 학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비춰진 낭만적인 모습 그리고 IT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는 한국의 화려한 모습에 도취되어 있던 학생들에게 국가위험 (Country Risk)이라는 주제가 포함된 첫 수업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의 과정,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현실, 분단국가라는 돌발변수에 대한 내용에 많은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기업들의 구조와 경영전략 및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들을 들으며 부딪힘을 느낀 반면, 이에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타 학교 학생들을 보며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되겠다는 웬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모든 한국사람들이 다 송중기, 송혜교처럼 생기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외국인 친구의 농담 섞인 답변에 그저 씩씩하게 웃었다는 것은 비밀.

## Chapter3: 일본의 세심함과 미래에 대한 계획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길로 보여지는 동경은 친절함이라는 단어를 항상 태그로 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도 행정실 직원이 아닌, 버스 안내원이 이동하는 내내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안내를 하였으며, 숙소에 도착하니 본인의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진 수도꼭지를 보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모든 것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다시금 받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동경이 DBiA의 마지막 행선지이다 보니 히토쓰바시대학의 MBA 학생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경과 서울에서의 일정보다 더욱 탄탄하고, 제대로 호의에 보답해야겠다는 것에 기존에 짜인 일정 외에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정된 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가되었고, 많은 배려가 느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수업 및 기업탐방 시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DBiA의 목적과 각국의 대표하는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하였습니다. 동경의 개발 초기부터 함께한 M사 기업탐방을 시작으로 start up 회사들의 요람으로 불리는 T사 방문까지. 역사적으로는 민감한 관계의 나라이나, 고령화 사회와 고급 외국인 인력의 유치 및 smart city로의 개발에 적극적인 것을 보며,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한국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Chapter4: 종합적인 평가 및 향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세계적으로 구조적 저성장이 New Normal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은 악화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상시적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미래를 반영하듯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표현이 대부분의 기업과 조직에서 언급되고는 합니다. 한중



일, 그 중에서도 각국을 대표하는 서울, 북경 그리고 동경 역시 국제시장에서 제한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생존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찰력을 지닌 각 학교를 대표하는 교수님들의 강의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잠재력을 지닌 기업들을 방문하며 그 치열함의 단면을 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불변의 기준은 단 한가지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가치등식 'V=(PQ+SQ)/(P+CC)'의 성립입니다. 즉, 기업 또는 개인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합(PQ+SQ)이, 명목비용(P) 및 고객 또는 상대방이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추가비용(CC: Customer Cost)보다 크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가치의 창출입니다. Global Normad의 저자 짐매튜먼은 취업유목민이 주도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저는 국제 결혼하신 부모님과 다국간 다양한 경험,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통한 글로벌차원의 '가치창출'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DBiA를 통해 열정 가득한 수많은 인재들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향후에도 업무지식은 물론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의사결정에 필요한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Last but not least, 앞서 언급했던 다채로운 경험은 DBiA라는 프로그램이 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DBiA는 CAMPUS 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신 CAMPUS Asia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마칩표를 찍습니다.

CAMPUS Asia - a gateway to success!

# 上海, 중국 대륙을 넘어 세계를 품에 안다



이윤정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고려대 - 고베대 - 복단대)



2015년 2학기- 2016년 1학기 복수학위 과정을 마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소속 이윤정입니다.

## "왜 중국 문학이나 정치 같은 걸 공부해?"

제가 지난 학창시절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저의 학부시절 전공은 중국 문학과 더불어 정치외교학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취직에 전혀 쓸모 없는 학문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와 같은 핀잔으로 방문했지만, 다시 대학에 가게 된다 해도, 저에게는 또 다시 선택할 소중한 학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중국영웅호걸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즐겨 읽은 터라 중국문학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더 나아가 문학 속 중국영웅호걸들의 난세에 살아남는 기치와 처세술은 저를 매

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중국 정치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중국문학과 세계 정치, 외교 그리고 문화 대한 저의 탐닉은 학업 연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 국제평화안보와 공공정책을 전공하는 동북아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로 도약하고자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현재까지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열정들이 바로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 되기 시작했으며, 상해 복단대에서의 수학은 저의 신념과 선택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문과 입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에서 연수 경험이 없었던 저는 지원 당시만 해도 소위 '무늬만 중문과'로 중국어를 한마디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퍼스 아시아를 지원하면서 학위와 더불어 중국어는 꼭 잡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에 임했으며, 합격 후 개인적으로 크게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복수학위인 만큼 논문완성과 졸업이었고, 두 번째, 중국어는 중문과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중국어 실력배양, 마지막 세 번째는 소세계라 불리는 중국대륙에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경험하기였습니다. 아마도 저의 1년동안의 생활을 모두 담긴 힘들겠지만, 이러한 3가지 목표

를 중심으로 성취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단대, 중국인재의 보고”

복단 대학교는 한국에서는 많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중국 내에서는 3위, 특히 공공정책과 국제관계부문에 세계15위권에 랭크 하는 소위 말해, 명문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체 구체적으로는 중국 남부의 모든 인재들이 모두 모이는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북쪽 친구들은 북쪽 학교에 진학 하는 것을 선호하고, 남쪽 친구들은 남쪽에 위치한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반 중국 친구와 수다를 떨다 그 친구가 바로 그 지역 1등인걸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중부의 충칭 시의 인구가 3,800만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복단대에 입학한 것을 가능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 만큼 학구열도 굉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기 때문에, 수업, 뿐만 아니라, 같은 반 학우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공부했던 국제관계 공공정책대학원은 타 유럽대학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서 중국 친구들과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나눌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이해를 넘어서서 국가의 이해, 더 나아가 각 나라



의 문화의 이해로 까지 이어져 더 깊고 다양한 사고와 더 넓은 이해력을 갖출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복단대에서의 수학은 중국에 대한 공부와 이해를 넘어서, 세계 속의 대한 민국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 “入乡随俗, 중국에 오면 중국의 식으로”

入乡随俗 라는 말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와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중국에서 생활 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의 특징과 습성들을 금방 알아 챌 수 있는데, 학교 또한 중국만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중국에 관한 막연한 편견이 있다 해도, 중국에 왔으니 중국식으로 생각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면 생활이 한층 편해 집니다. 중국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학교 차원에서 챙겨주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어본다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군가 먼저 챙겨 줄 것 이라는 기



대는 살짝 내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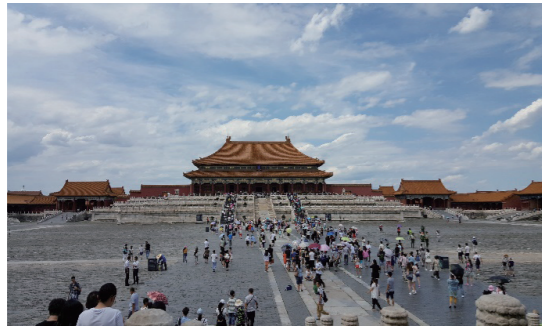
처음 중국에 도착과 동시에, 기숙사 등록, 비자 심사 등 생활적인 면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특히 학교 생활에 관해서는 배포해주는 핸드북과 스케줄러를 꼼꼼히 읽어보고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생소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돌이켜보니 학생의 자율적인 능력을 배양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수학 위생에게 논문을 쓰기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점 교환과 지도교수 선정입니다. 학점 교환에 따라서 본인 시간표가 결정 될 수 있으니 학기 초에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합니다. 지도교수 선정에 관해서는, 저의 경우, 첫 학기 수강신청을 한 교수님들과 핸드북에 소개된 교수님 위주로 저의 관심분야와 전공을 결합시켜 미리 연락을 취한 이후에 지도 교수를 선정 했습니다. 지도 교수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1년동안 작성하게 될 논문의 통과여부를 결정 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복단대의 지도 교수님이 제 인생의 멘토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1년동안의 꼼꼼한 논문지도로 논문 통과로 까지 이끌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학업에 관한 고민상담과 더불어 중국 생활과 학교 생활의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사제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최근에는 고려대학교의 지도교수님의 초청으로 복단대 지도교수님이 연사로 한국을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 “중국어= 생존수단→ 삶을 윤택하게 하는 힘!”

학교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상해가 국제도시라 하더라도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 중국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모두 영어 또는 외래어로 사용하던 음식 이름커피 이름 조차도 중국에서는 모두 중국어로 되어있어서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위엄을 느꼈습니다. 물론 학교 차원에서, 중국어 무료 수업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부끄럽지않은(?) 중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만한 기준을 높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적응 하자 마자 일대일 튜터 수업과 언어 교환의 두 가지 형태로 평소에 중국어 실력을 갈고 닦고자 애썼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택시 탔을 때 집에만 제대로 가자 하는 마음에, 성조 발음 완벽하게 주소를 달달 외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졸업할 때가 될 무렵, 저는 중국인 선생님, 교수님, 친구들과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단이 아닌 소통으로써의 중국어는 저의 중국생활에 또 다른 힘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중국어로 교류는 또 다른 그들의 사고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향후 미래에 더 발전된 중국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중국문화





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자연스럽게 중국적 가치를 통한 국제사회, 외교사의 이해로 이어졌고, 또 다른 소통을 위한 '컨텐츠'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어 사용이, 일상생활대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적절한 소통이 저로 하여금 중국적 가치에 대한 이해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소통에 대한 인식은, 만약 제가 또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배우고자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아가 세계무대에서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중국, 세계를 담은 나라”**

시쳇말로 중국에는 없는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경험 해본 바로도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초원부터 사막을 아우르고 바다 강 산 을 모두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리도 다양하고, 소수민족들에 의한 문화적 다양성도 어마 어마 합니다. 비록 1년동안 논문과 중국어 공부에 매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문화적 경험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는 매일 학교 식당과 학교 근처 중국 음식점을 배회하며 친구들과 야식을 즐기기도 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여행계획을 세워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 크고 작은 도시와 자연경관을 둘러보기 위해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황산을 야간 등산하며 호연지기를 길

렀고, 상해근교 수향마을에서 배를 타며 음유시인이 되어보기도 했으며, 몽골의 초원에서 말을 타며 징기스칸을 그리워했고, 진시황릉과 만리장성 위에 앉아 진정한 중국의 꿈(中国梦)에 대하여 고민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 한 저의 경험들은 그들의 문화를 좀 더 깊숙이 이해 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이해하고, 세계 속의 아시아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봐도 다시 복단대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 가고 싶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작성한 것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고려대학교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며, 저 역시도 이러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중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체험수기



강종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사업단 : 서울대 - 히토쓰바시대 - 북경대)

**1. DBiA 프로그램 개요**

“BeST: Megacity Competition and Cooperation”이라는 주제로 8 월 9 일에서 8 월 24 일까지 북경-서울-도쿄에서 실시된 “Doing Business in Asia”(이하 DBiA)는 졸업 후 각국 비즈니스의 주역이 될 MBA 학생들이 국제적인 비즈니스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DBiA 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북경대, 서울대, 히토쓰바시대 3 개 학교의 MBA School 이 연합하여 아시아 국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만든 2 주간의 집중강좌이다. 참가자는 각 MBA School 10 명씩 총 30 명으로 이루어지며, 이 참가자들이 직접 북경, 서울, 도쿄를 여행하며 강의, 견학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광범위한 토픽을 다루게 된다.

**2. 모듈 별 세부내용 및 느낀 점**

우선 북경 모듈의 경우, Zhang Yanlong 교수님의 “Urban Entrepreneurialism: A New Growth Paradigm” 및 “China’s Urbanization”세션을 통해 ‘북경 Hukou’,

‘SOE’ 등 북경의 비즈니스 특성을 이해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의 배경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Wang Rui 교수님의 중국 소비자들과 유통채널에

대한 세션 역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매우 재미있게 듣고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ZD’와 ‘Edaijia’ 회사견학을 통해서도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와 online penetration 에 대해 엿볼 수 있었다. 다만 북경의 문화 체험 일정은 만리장성 및 자금성으로 DBiA 전체테마나 북경 강의세션과는 그다지 연결되지 않아 통상적인 관광에 그치고 만 점이 매우 아쉬웠다.

서울 모듈의 경우, 첫 스타트를 끊은 황이석 교수님의 “Corporate Governance/ Transparency” 강의는 깊이 있고 매우 인상적이어서 한중일 학교 학생 모두 진지하게 듣고 강의 후에도 서로 토론을 많이 하던 세션으로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다른 한국 교수님 강의들은 특별한 인사이트를 얻지 못하고 강의 퀄리티에도 의문이 다소 들었다. Guest Lecturer 보다는 서울대 교수님들의 강의로 채워졌다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네이버와 CJ E&M 회사방문은 우리 나라 대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가 너무 컸었는데, 질문 응대라던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도 상대가 한중일 3 국에서 제일 뛰어난 MBA School 의 재학생인데 (특히 일본·중국의 DBiA 참가자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고 들었다) 해당 회사에서는 이들을 마치 중고등학교 단체견학처럼 응대한다는 느낌이

들어, MBA 학생들의 회사방문을 인재채용의 기회로 오히려 활용한다는 구글 등의 프로페셔널한 대응이 부러운 생각이었다. 서울 모듈의 문화체험 역시 개별적으로는 각각 의미 있는 장소이나 DBiA 전체 테마나 서울 모듈 테마와는 일관성이 다소 떨어져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서울 모듈이 참가자들을 배려하는 Hospitality 측면에서는 3국 중 제일 뛰어났지만 상대적으로 강의 퀄리티나 모듈 콘텐츠의 일관성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제일 많았던 모듈이라고 생각된다.

도쿄 모듈의 경우, 모듈을 담당한 Michael Korver 교수님의 전 일정 동행과 진행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때문이었는지 도쿄의 강의-회사방문-문화체험 모든 세션은 매우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상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회사방문 일정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상당수 회사의 Lecturer가 일본어로만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집중도 및 interaction이 현저하게 떨어진 점은 아쉽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싶은 주최측의 의지가 너무 강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딱딱한 일정은 (eg. 30분만에 점심 먹고 집합, 하루 중 여러 개 회사 연달아 방문 등) 마지막 모듈이라 에너지가 고갈된 참가자들에게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나중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지쳐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예를 들어 룯븐기힐 일정의 경우에도 룯븐기힐을 제대로 체험할 겨를도 없이 바로 강의에 들어가서 참가자들 대부분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당일 아침 일정한 Chronogate 방문과 (Chronogate는 물류 회사이며 내용상 전체 테마와 무관함) Kanno 교수님의 강의를 생략하고 룯븐기힐 견학과 개발자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더라면 훨씬 의미 있는 일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한편, 2주간의 프로그램 기간 내내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주었던 것은 역시 팀 프로젝트다. 3개국

학생이 6명씩 한 팀을 이루어 3개국의 경제/산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스마트한 미래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구하는 프로젝트는 사실 딱딱한 일정 속에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연하게도 각 팀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마지막 날 발표물) 통상적 수준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이 핑퐁처럼 주고받은 지식과 의견들은 3개국의 비즈니스 현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은 "Entrepreneurships in 3 mega cities"란 주제로 한중일 3개국의 스타트업 여건과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온도 차와 현황이 확연히 차이를 체득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어마어마한 시장 사이즈 및 정부지원도 있지만, (한국·일본과는 달리) 스타트업 자체에 대한 중국시민들의 오픈마인드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취업 및 소비성향에 있어 대기업 지배적인 문화와 지나치게 작은 시장 사이즈가 스타트업에 부정적인 향을 끼치고 있는 반면, (중일과 비교하였을 때) 글로벌한 크리에티브 인력 및 infrastructure가 스타트업 활성화에 (+)요소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및 외부인력에 폐쇄적인 문화가 (-)요소인 반면 infrastructure와 모험심 강한 (venturesome) 소비성향은 (+)요소로 꼽혔다. 이렇게 3개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각국의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협업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financing을 활용하여 서울에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하거나 또는 3개국이 모여 스타트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Multi-Sided Platform을 구축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가장 큰 아쉬움은 DBiA 프로그램이 이미 수년째 진행되어온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모듈간 노하우의 축적이나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체 프로그램 진행내용과 서베이 결과에 대한 전산 축적 및 넓은 공유 그리고 각국 행정실 담당자의 타 모듈 참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모듈 관련 한가지 의견을 덧붙이자면 DBiA 프로그램 기간 중 강의를 위해 많은 분량의 케이스를 읽는 과정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주라는 시간은 3개국을 모두 여행하면서 이해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와 참가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오롯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몇 십장의 HBS 케이스를 읽는 것은 한국에서도 365일 가능한 일이지만, '베이징올림픽 이후 베이징의 건축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고령화 문제와 직면하여 일본사회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체험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물리적으로 거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중국·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호텔방 밖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번 프로그램 중 호텔방에서 케이스를 읽고 있을 때 내 자신이 가장 바보처럼 느껴졌다. 하다못해 도쿄 골목의 선술집에서 사케를 마시더라도 케이스를 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향후라도 굳이 케이스를 선독해야 하는 강의가 있다면 DBiA 시작 전에 모두 완독할 수 있도록 행정실의 충분한 설명과 가이드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 3. 본 프로그램이 학업과 진로에 미칠 향 본 프로그램은 비즈니스나 MBA 학업 외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일해왔던 관광산업 분야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사실상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객수 1,2위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일본 학생들과 3개국을 함께 이동하면서 여행하는 것은 주요고객을 이해하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방한객 유치

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다.

\*2015년 기준 방한중국인 600만명, 방한일본인 180만명, 전체방한객 1300만명 (출처: KTO) 그중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우선 베이징 모듈에서 Wang Rui 교수님의 "Understanding Chinese Consumers"와 "Reaching Chinese Consumers" 세션은 중국관광객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특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중국사람들은 쇼핑을 좋아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강의를 통해 중국인들은 쇼핑을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닌 'entertainment'로 간주하고 있으며, 매우 'price sensitive'한 소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중국 내 유통채널의 파워 및 복잡성에 따라 인터넷서널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타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통해 중국인들의 최근 한국 쇼핑 관광 러시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 인바운드 관광업계에서는 최근 일본정부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2020 도쿄올림픽을 눈앞에 둔 일본정부의 활발한 정책과 전통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hospitality' 문화가 결합하여 경쟁국가인 일본에게 방한객을 많이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다. 이러한 배경을 마음에 두고 도쿄 모듈을 참여한 결과, 일본의 눈에 보이는 외국인 환 사조 뒤에는 그에 반하는 일본인의 '혼네'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일본인의 서양문화에 대한 동경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일본시민들은 'immigration'에 매우 부정적이며, 한국·중국 등 주변국 관광객의 일본 방문에도 달갑지 않아하는 기색이었다. 변화가에서 대놓고 외국인 타깃인 음식점의 서비스는 한결같이 훌륭하지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을 방문하면 어소통이 안 되는 것은 기본이고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우리의 방문에 무뚝뚝한 응대로 기분이 상한 것도 몇 차례다. (파란 눈의 서양인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어찌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을 교훈이다. 한국 역시 매년 정량적인 방한객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우리 공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며 업계를 독려하지만, “중국인이 많아서 너무 시끄럽다” 고 내놓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라던가 외국인만 가려서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음식점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세련된 마케팅 슬로건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업계의 기본적인 응대마인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더욱 고려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우리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주요 고객인 중국·일본 소비자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회사 복귀 후 한국관광브랜드마케팅, 언론인 대상 홍보사업 및 여행상품개발 등의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 기간 중 체험한 중국 및 일본 내 관광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참고하여 우리 관광산업 정책 수립 및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에 벤치마크 할 예정이다. (eg. 일본의 실버세대 타깃 관광 인프라 구축 등)

#### 4. 캠퍼스아시아 장학사업에 대한 감사와 성원의 메시지

30 명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국적뿐만 아니라 각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었지만, 프로그램 중간중간 및 프로그램 종료 후 3 개국 참가자들이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통으로 언급한 메시지는 하나다.

“DBiA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현황을 피부로 체험하고 3 개국의 문화와 정치·경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에 DBiA 를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는 “diverse”와 “intensive” 두 가지 일 것이다. 이미 1 년간의 SNU MBA 수업을 통해 나는 집단의 결과물에 (+)변수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다양성”임을 배운 바 있다. DBiA 에 참여한 30 명의 학생은 국적 및 유학경험 그리고 업무분야가 그야말로 다양해서 틈틈이 mingling 하는 자체로도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어울림을 통해 얻는 지식과 경험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2 주간의 짧은 시간 속에 방문국가의 언어, 문화, 식습관, 정치, 경제,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중요한 현지인들의 사고방식, 심지어 회식과 음주문화까지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이 “intensive”한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MBA School 강의 실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value 가 넘쳐난다.

DBiA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면서, 어릴 때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전거 타는 방법은 결코 책으로는 만은 배울 수 없으며, 몸으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어느 순간 저절로 타게 된다. 그러나 한번 타는 법을 알게 되면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평생 그 기술을 잊지 않게 된다. DBiA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참가자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2 주간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현장에서 배웠던 지식과 기술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체화되어서 향후 학업을 마치고 업무를 복귀한 후에도 줄곧 긍정적인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계획하고 지원해준 “캠퍼스아시아 지원사업”에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더 많은 각국의 인재들이 이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부탁을 함께 전하고 싶다.

## What kind of Asia do you want to live in?



원동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서울대 - 동경대 - 북경대)

'What kind of Asia do you want to live in?' was the question Professor Takahara tossed us before we were about to finish the lecture. My classmates and I were discussing about Asian regionalism, and main goal of our topic was how to promote peaceful cooperation among countries. The question that Professor asked got me thinking about my past experiences of a year and half in Beijing and Tokyo. When I first started the program, I was so thrilled to have this amazing opportunity to go on two countries, China and Japan. I was able to go to China as an exchange student when I was an university student, but I did not expect I could have this experience even during the Master's program.

CAMPUS Asia program was a huge motivation that brought me back to Korea and study. I moved to Canada when I was twelve years old, and even though I sometimes go back and forth to my country, I had been always eager to study back in Asia. So during my third year in undergrad, I went to Shanghai to study Chinese

and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Despite of more than nine hours of flight and apart from my family, the reason why I chose to go to Shanghai and study was because I wanted to explore China and feel the country and the culture with my own skin. It had been most valuable experience in my life ever since, and I always sought to have one more chance to go back to Asia and study once more.

When my three professor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viewed me for admission to the school, I told them I applied to SNU in order to join Campus Asia program. I elaborated how much I wanted to become an Asia expert, and contribute to peaceful cooperation among Korea, Japan and China. Fortunately, I was able to study at SNU from September, 2014 and I prepared all the language proficiency exam for Japan and China to move a step closer to my future dream. I strongly believe that language itself represents the soul and culture of the country. If I do not know language, I do not think I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m fully. Therefore, before my departure, I promised myself to take at least one course in either in Chinese and Japanese for each country.

### Beijing - Peking University

I can still clearly remember the first day I arrived in Beijing. Although the Shoudu airport provided wifi service, I was not able to connect it, I was alone, and I was lost. I heard that there is a bus that goes directly to Peking University, so I decided to ask a staff. However, the Beijing's dialect 'er (儿话)' sound was strong enough to make me bewildered, and gave another motivation to study Chinese harder. Few hours later, I was able to get into Peking University dorm, Zhongguanxinyuan(中关村新园). Since we are based on Chinese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we lived in building number 5, where all scholarship-based students from all around the world live together. I met numerous students from multiple countries, and because we were lonely apart from our families, live in the same hallways,



Peking University SIS Friends

and share the same bathroom, we could easily build our own friendship.

I took two classes in Chinese, and one class in English. They were all conducted by Chinese professors. I was more fascinated by classes in Chinese, because professors were not afraid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towards Sino-Japan relations, Chinese Communist Party or Xi Jinping. What I learned from Canada or Korea, was how outside sees China, however what I learned in Peking University was how China sees China, and other countries. During my East Asia Research course, the first question my Chinese professor asked other students was that 'Why does China hate Japan?'. This question led to diverse discussions among Chinese students and few international students, and at the end, we concluded our discussion by saying both China and Japan need to cooperate each other to enhance regional security, and economies. In this way by sharing our ideas about global issues develop us to be more open-minded and friendly towards the



23班 Classmates from Building 5

others. If I did not go to Peking University, I would not know how Chinese students, scholars or just normal citizens would think of Korea. All I hear and read are mostly from news papers, and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do not represent every single opinion of each person.

Although some Chinese friends were a bit nationalistic when it comes to international disputes or controversies, each student I met was enthusiastic and was eager to learn more about other countries' cultures. Their eyes were sparkling with excitement when we talk about Korean drama, K-pop, or Japanese Anime. They were also interested in learning new languages, so they always asked me to get a Korean language partner. On the international level, state to state, we might not be able to cooperate and get along without any barrier like we, students do. However, I strongly believe that if we change the perceptions and impressions one by one, countries will be able to reconcile and have a peaceful cooperation eventually.



Beijing's best gift : My life time best friends

### Tokyo - University of Tokyo

One day, my Japanese CAMPUS Asia friend asked me why do Koreans give out so many things as presents. At first, I did not know what she meant, but she kept on explaining and said that she spotted that many Korean friends bring souvenirs when they go somewhere travel or visit. She told me that Japanese do not bring many souvenirs or snacks especially when they visit the same country twice. However, she explained wherever Korean friends go, they always bring something for other friends. I thought it was very cute and funny to be caught from my foreign friend's eyes, because as a Korean, I did not know how special that culture of ours was. I explained to her about Korea's 'Jung(情)' culture, telling Koreans express 'Jung' to show that they care about each other. My friend said Japan might have that Kanji, but she has never heard of that usage. She gradually understood the meaning of 'Jung' as we spent time together for almost two years.

Japan is the closest country from Korea, yet



Dinner with other CAMPUS Asia friends



Campus Asia Summer School 2016 at Nagasaki



After International Conflict Presentation

we have so many differences in culture, political systems, and national identities. Although Japan and Korea have a long history to reconcile and solve, I personally was looking forward to studying at Tokyo University due to its prestigious reputation of education, scholars, and students. Also, since I never lived in Japan before, I was excited to have a new opportunity to live in another environment. University of Tokyo was full of diversity and multi-culture. Everyone ca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countries, ages, and fields of expertise. Each one of them had their own potentials and strength, and I could develop sanguine outlooks by simply connecting with them.

By taking lectures with famous Japanese Professors, I was amazed by their deep knowledge and critical thinking. Not only they share their views on the subjects, they also lead students think and reach their own solutions. I studied a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GrasPP), and the department offered many scholarship programs like GSDM (Global Leader Program for Social Design and Management), GPPN (Global Public

Policy Network), and many more to send student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nference. I was lucky to be a part of Policy Changing Program, and we are assigned to pick on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by United Nations, and have to propose solutions and implementations for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finalists will receive a scholarship and be able to make a presentation at GPPN Paris in 2017. Currently, I am working on SDG 7: Responsi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wish to have the best result at the end of this year.

Tokyo has given me many opportunities to build networks all around the worl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broaden my career options. If I want mor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they are all waiting for you to grab the chances. Although I came to Japan to study, I earned much more than just knowledge. I was able to take classes with bright and passionate scholars, and they broadened my outlook and motivated me to plan ahead for my future.

### Reminiscing My 1.5 Years

I was once told that all the Chinese students and Japanese students, even professors I meet during CAMPUS Asia are not ordinary people. By saying not ordinary, it does not mean they are abnormal, but they are different from majority Japanese or Chinese who grew up solely in their own countries. Most of students I meet were grown internationally, have at least a year of an experience staying abroad, and certainly are more open-minded. Just because I am surrounded by open-minded students, I can not take them as representatives or majorities of two countries. Even though I was aware of those points, I kept on becoming more optimistic about future of Korea, Japan, and China. I was happy to see the little change we make, and just like little drops of water make the mighty ocean, we can make a huge difference and legacy for future generation.

Most of friends I met in Seoul, Beijing and Tokyo have either already graduated and working, or still studying and figuring out what to do in

the future. I had CAMPUS Asia reunions in three cities. I did not meet the same people every time, but because we have a huge connection called CAMPUS Asia, we can meet anywhere, be friends with anyone and still welcome each other like old friends. I am still not a professional regarding to East Asian issues, or international relations, but my passion is second to none. CAMPUS Asia has given me valuable friends and life time experiences, and I will be working harder to achieve my dreams.



My SNU buddies/Sisters for 2.5 years



Campus Asia Reunion from year of 2013, 2014, and 2015

낯선 중국에서  
이방인이 되다.



서청원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사업단 : 성균관대 / 서울대 - 나고야대 - 인민대 / 칭화대 / 상해교통대)

### 1. Campus Asia, 이야기를 시작하며

대학 생활을 하면서 꼭 한 번은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다. 거기에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사회와 그 법을 배우는 CAMPUS Asia 프로그램은 나에게 더 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기회였다.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내가 중국에서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장점이었다. 아무쪼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 1년 정도 지원자를 모집하기를 기다렸다. 다행히 성균관대-중국인민대-일본나고야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본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2016년 2학기 파견에 지원할 수 있었다.

법은 해당 사회를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의 법을 배우는 것은 그 사회를 들여다보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는 CAMPUS Asia를 통해 1학기 동안 중국인민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법체계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중국 사회를 배우고자 하는 '친밀한 이방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래서 법에 대한 세세한 이론을 찾아 배우기보다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문화·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나의 주요 관심사였다.

### 2. 이방인이 되다.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잠시 둘러 가는 여행객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방인으로써 중국에 스며들어 그들의 문화에 맞춰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방인'이 된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낯선 존재인 동시에, 자신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참 낯설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이 된 우리는 우리와 그들 모두에게 낯선 존재일 것이다. 이러한 낯설음은 중국인들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가 그들을 바라보는 호기심의 원천이자, 뻘뻘했던 생활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 삶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되었다. 그리고 호기심과 여유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되었다.

2016년 9월 1일 베이징에 도착한 후, 일주일은 유독 작고 사소한 사건의 연속이었다. 기숙사는 창문이 고장 나있어 닫을 수가 없었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기숙사 방문이 저절로 잠기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의 휴대폰은 인터넷이 되는데 유독 내 휴대폰은 되지 않았고<sup>1)</sup>, 그마저도 휴대폰이 고장나버려 유심 칩을 인식하지 못했다. 마침 CAMPUS Asia로 함께 파견 온 다섯 명 중에

1) LG 휴대폰이 설정상의 문제가 있어 처음에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았다. 설정을 바꾸면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유일하게 방을 따로 배정 받은 나는 그 당시 룸메이트가 없었다. 일주일 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을 혼자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낯선 중국에 적응해가는 시간을 가졌다. 마치 신고식처럼.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나는 중국어 초보자였다. 중국어 회화를 배워서 짧은 문장을 구사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나의 짧은 중국어 뒤에 들려오는 중국인들의 빠른 대답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앞서 일주일 동안 발생했던 사소한 문제들이 당시의 나에게 큰 도전거리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숙사 프린트를 찾아가 '방 창문이 고장 났다'고 말하면 역시나 직원이 중국어로 이것저것 말씀하셨다. 그러면 연신 "听不懂"이라고 말하며, 중국인 직원이 쉬운 단어를 천천히 말해 주기를 바라곤 했다. 중국 휴대폰을 사기위해 학교 앞에 있는 샤오미 매장을 방문해서도 다를 바 없었다. '저렴한 샤오미 휴대폰을 찾고 있다'고 점원한테 말하고 나면, 점원이 이것저것 보여주며 나에게 휴대폰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물론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이처럼 이방인으로써 첫 일주일만은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투성이였다.

분주했던 일주일 덕분인지, 이후 중국 생활에서 크고 작은 도전을 즐기고 실패를 개의치 않게 되었다. 특히 음식을 주문할 때면 '복불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번 새로운 선택과 사소한 실패를 경험하곤 했다.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처음에는 단지 복불복 같이 느껴지던 까마득함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고 중국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해나갔던 것 같다. 한국에서는 그저 무료했던 '물건을 사는 일상들'이 중국에서는 특별한 순간들이 된 것이다.

### 3. 중국을 배우다.

중국인민대학에 파견 오면서 중국의 사회 체계와 중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인민대학에서 진행되는 전공 수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사회 체계, 특히 법을 배우고 그곳에서 중국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전공 수업의 환경은 나의 예상과는 다소 달랐다. CAMPUS Asia는 프로그램의 특성 상 중국인 학생들을 만나기 힘들다는 역설적인 환경이었다. 오전에 어학원 수업을 듣고 난 후, 오후에 전공 수업을 듣게 된다. 그런데 전공 수업의 대부분이 LLM 프로그램으로 개설되는 수업들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LLM 프로그램 자체가 중국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 보니,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은 모두 중국에서도 외국인인 것이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지만,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LLM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국인 학생을 위하여 중국인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법의 세부적인 법 조항을 공부하기 보다는, 개괄적인 체계를 쉽게 가르치고자 수업을 진행한다. 가령 중국 법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하고, 중국 판시 문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등 중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중국인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중국 사회 체계의 큰 그림을 알아 가는데 LLM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다른 문화권에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중국 사회에 대하여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하거나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이 유익했다. 그 시간이면 다른 문화·국가의 제도를 함께 공유하고, 직접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제도와 비교할 수 있어 배우는 점이 많았다. LLM 프로그램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Introduction to Chinese Law', 'Chinese Corporate and Security Law', 'Civil&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in China' 등이 있다.

중국인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싶었던 아쉬움은 2학기 후반부에 듣고 있는 Master Course에서 해소할



수 있었다. CAMPUS Asia나 LLM 프로그램 학생들이 대부분 LLM 프로그램을 위주로 수강하나, Master Course에서 열리는 영어 수업도 같이 들을 수가 있다. 사실 LLM과 Master Course의 차이점을 몰랐던 나는 듣고 싶은 수업이 Master Course에 개설되어 수강 신청을 하여 수업을 들으러 갔다. 수업을 들으러 가셔야 알게 된 사실이 LLM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Master Course는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석사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수업이었다. 첫 수업시간에는 교수님과 나를 제외하면 모두가 중국인이어서, 모두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다. 중국인 학생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을 좋아해, 수업 내외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법을 전공으로 공부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쉬는 시간에 물으면 마치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대답해주곤 한다. 그야말로 강의실에서 소수의 이방인이 된 나에게서는 이상 속에 존재했던 '중국의 수업'을 실제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 법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중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곤 한다.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듯 보이지만,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문화가 크게 다른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중국인 친구들에게 '왜 그런지'를 묻는다고 하여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당연해온 것처럼, 중국의 문화도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니까. 이런 궁금증에 답을 얻기 위해서였는지 중국에서 중국, 특히 중국 문화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책과 자료들을 유독 많이 찾아보게 되었다. 작가가 중국 기행 후 집필한 소설 '정글만리',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다룬 교양서적 등을 읽으면서, 중국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곤 했다. 중국에 살면서 일종의 생활이자 생존의 문제를 겪으며 생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면,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듯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중국에 오랫동안 생활한 친구들이나 중국을 연구하신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팁을 얻기도 했다. 일례로 CAMPUS Asia 지도 교수님 두 분과 박사님이 중국에 출장을 오셔서 빈 적이 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중국이 어떤 국가인지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조언들이 나중에 중국 생활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가령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중국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위챗페이·알리페이가 발달한 이유에 대하여 중국의 사회·경제 체제를 통해 설명해 주신 적이 있다. 이때의 깨달음이 대국, 그야말로 드넓은 중국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우리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 4. 친구들과 교류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LM 프로그램은 석사 과정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석사생을 학우로 만날 수 있다. 자신의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위해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을 방문한 학생도 있다. 그래서 LLM 프로그램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구축해 나가는 학생들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점은 당연 본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이다. 반면, 중국인 친구는 Master Course나 동아리, 언어 교류 등 각자의 방법을 통해 만나고 교류하고 있다. 나의 경우에는 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치러 갔다가 만난 조선족 친구와 중국인 친구를 통해 여러 중국인을 만났다. 또 룸메이트가 MBA 과정을 밟고 있는 캐나다인이다 보니, MBA를 전공하고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파견 나온 한국인, 말레이시아인, 독일인 등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중국최고인민법원 회의 때문에 교수님이 수업에

오지 못하고, 조교들이 대신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수업 진도를 나간 뒤, 남은 시간 동안 국제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질문하고 반박하는 토론의 순간이 마치 그림처럼 머릿속에 강렬히 남아있다. 유독 2016년의 가을은 국제적으로 다사다난했다.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뿐만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대선 등이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한 공간에 한국인, 중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미국인 등 해당 정치 상황의 이해당사국 출신의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여 사실을 설명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서로의 생각이 어떤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그 시간은 마치 비정상회의와 같이, 열띤 토론 속 서로를 이해해가는 교류의 장이었다. CAMPUS Asia를 와서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우를 만난다는 것은 수업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 5. 무엇보다도 여행!

중국인민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무엇보다도 중국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다. 2학기에는 중추절과 건국절이라는 큰 연휴가 두 번이나 있었고, 교통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에도 무리가 없었다. 친구들과의 여행·혼자여행, 자유여행·여행사여행 등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여행을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 이 역시 중국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칭다오, 지난, 내몽골, 다통, 천진 여행을 다녀오고, 틈틈이 베이징 곳곳을 다니고 있다.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큰 국가로써 중국을 다시금 느꼈다. 중국 여행의 매력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와 볼거리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 큰 국가 중국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또 지역 별로 역사적 배경이 가지각색이어서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언어가 크게 차이 나곤 한다. 가령 조

계지였던 칭다오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이 유럽풍이다. 반면 자치구 내몽골은 말을 타던 과거의 모습을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 # 고궁과 스친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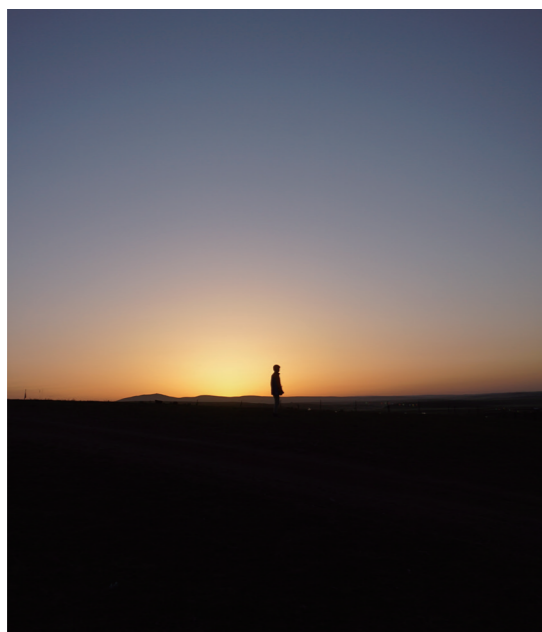


#### # 칭다오와 지난





# 내몽고



단순한 인구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을 고려했을 때, 중국만큼 다원화된 국가를 찾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와 동시에 통합에 대한 중국인의 강렬한 열망은 서로 공존하기 힘든 문화적 요소라는 생각도 했다. 다원화, 독립 운동, 대만 등의 사회 이슈와 증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됨에 대한 열망은 중국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요소일 것이라 생각한다. 다원화된 문화를 한 체제 안에 묶고, 독립 운동을 억제하여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써 통치하겠다는 그들 자신의 목표 아래에서는 지금 중국 통치 시스템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단순히 지도상에서 넓은 중국을 보는 것과 여러 모습의 중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중국을 이해하는데 큰 차이가 있었다.

6. 두 달을 바라보며

중국에 온지 두 달이 지났고, 앞으로 두 달여 남짓한 기간이 더 남아있다. 앞선 두 달을 돌이켜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여행도 다니고, 교환학생 가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하라 바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그래서 인지 유독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다. 어느 덧 나에게 주어진 CAMPUS Asia 시간은 절반을 지나 두 달 가량이 남아있다. 앞선 두 달이 적응하고 하고 싶었던 계획을 해나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두 달은 지금까지 배운 '중국'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중국스러운 일들을 해보고 싶다. 단지 중국을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중국인들의 생활을 더 밀접하게 경험해보고 싶다. 지금까지는 중국인민 대학을 기점으로 학교 친구들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실제 평범한 중국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소수민족을 만나보고자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비록 두 달여 남짓 지났지만, 과거의 '나'와 지금

의 '내'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낀다. 목표를 좇아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여유를 가지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직접 체감하게 해준 사실만으로도 CAMPUS Asia는 내게 값진 시간이 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다른 것처럼, 나의 생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이러한 다름과 변화가 자칫 아집에 빠질 수 있는 생각들을 다시금 새롭게 환기시켜주는 것 같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것처럼, 내 앞에 남아 있는 두 달이 또 다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어떤 새로움을 선사할지.

# 오카야마 대학교(일본)를 다녀와서

김연정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원  
(사업단 : 성균관대 - 오카야마대 - 길림대)



캠퍼스 아시아의 오카야마 대학 교환 유학 장학생 공고를 본 후,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일본어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직접 그 나라에서 생활하며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졸업 후 대학원을 가게 된다거나 일본에서 취직을 한다거나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보았으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저 막연히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교환 유학이 가고 싶었다. 또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나와 일본은 연이 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반드시 오카야마 대학에 가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기에 나는 기말고사 기간 중에도 밤을 새가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준비했고 결국 캠퍼스 아시아 장학생에 선발되었다. 2016년 3월 31일 나는 드디어 하루에 한 번 오카야마로 가는 유일한 항공편인 대한항공의 비행기에 올라탔다. 하지만 나는 상공에서 작은 점이 되어 멀어지는 지상의 건물을 바라보며 바로 후회했다. 과연 나는 타국에서의 지난한 과정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나의 걱정을 잠재운 것은 일본인들의 친절함도 아니었고 기숙사에서 매일 벌어지는 파티도 아니었

다. 일본에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정 처리'였다. 행정 처리 때문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던 통에 정신이 없어서 나는 '적응'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카야마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오카야마 대학의 글로벌 파트너즈 센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 수업 등록과 기숙사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했으며, 또한 장학금을 수령할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학교 앞의 일본 우체국에서도 살다시피 했다. 그리고 우편함에는 각종 보험 등에 관련된 문서가 날아 들어와 쌓였다. 조금씩 정신을 차리게 된 건 4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갈 때쯤이었다. '행정 처리'야말로 가장 진정한 일본을 경험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서의 행정 처리란, 무엇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어 사람을 귀찮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내게 기분이 상할 만한 무례한 언행을 일삼지 않았다. 오히려 인상적인 친절함과 상냥함에 어딘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던 적도 많았다. 물론 답답했던 적도 있었지만 당시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결코 나쁜 첫인상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일본에서 살며 일해도 괜찮겠다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도 있었다.

한편 일본의 장마(梅雨: 쓰유)는 유월 초에서 중순까지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카야마는 5월에 접어들면서 매일 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오카야마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다가 일본은 애초에 한국에 비해 불편하면서 비싼 요금의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게 있어 거의 유일한 이동 수단은 '자전거'였다. 어딜 가든 자전거가 없는 다닐 수가 없었다. 이제 막 일본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해서 여기 저기 다녀야 하는데, 매일 엄청난 비가 내리니 자전거를 타는 일이 고역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우비를 입어 봤자 비가 완전히 수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눈으로 빗물이 다 들어와 의미가 없었다. 물론 일본인들도 공공연하게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타긴 했지만 또한 그것은 엄연히 경범죄였기에 눈치가 보였다.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지속되다 보니 기분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비가 오니 자전거를 타는 일이 불편하다.'라는 매우 사소한 사실로 인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정말 며칠이라도 좋으니 비도 내리지 않고 버스도 지하철도 자주 다니며 저렴하기까지 한 한국에 돌아가서 지내고 싶었다. 매일 인터넷으로 저가 항공권을 확인하며 정말 한국으로 며칠 다녀 올 결심도 했다. 그런 우울한 기분으로 일본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지내다 보니 5월도 거의 다 지나가 버렸다.

2016년부터 오카야마 대학은 2학기제에서 4학기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나는 한국으로 치면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1학기 시험을 5월 말쯤에 치른 후 유월 초에 교토로 여행을 떠났다. 이 시기가 일본의 장마기간에 해당할 때였는데 오히려 5월에 비해 날씨가 더욱 쾌청하고 습기도 덜했다. 유학생들은 유월에 일본의 장마를 경험하기 시작하며 4월과 5월에 일본에 막 도착한 직후

의 활기를 잃고 기분이 가라앉는 '유월병'을 겪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바닥을 찍었던 컨디션이 유월부터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해서 귀국하기 직전까지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다. 특히 '교토'가 내게 있어서 일본에 있어 더욱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는 여러 문화재들을 거닐어 다니며 기분 좋은 압도감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접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딘지 모를 부러움과 질투심이 들었다. 정말이지 '천년고도'라는 말을 절절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겉모습만 보면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 것 같았던 교토가, 실제로는 공산당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흥미로운 도시로 느껴졌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교토 여행을 한 이후에는 내가 몰랐던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교토 여행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내게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그 기분을 간직한 채 다시 오카야마로 돌아왔고 바로 2학기가 시작되었다.

유월이 되니 여기저기서 취활(就活: 슈카츠) 즉 구직 활동의 결과가 기숙사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실 오카야마에서의 한 학기가 끝나면 나 또한 4학년이 되기 때문에 '슈카츠'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놀라웠던 점은 취직에 있어서만 큼은 확실하게 일본이 한국보다 상황이 좋다는 사실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일본 특유의 스타일의 정장을 입고 자전거를 타면서 면접장으로 달려가는 기숙사 친구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면접을 본 후 녹초가 되어 기숙사로 돌아와 '슈카츠' 때문에 정말로 지치고 힘들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내 친구들과 동기들에 비하면 기숙사의 일본인 친구들은 비교적 쉽고 편하게 취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이

한국 학생들이 똑똑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일본이 여러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취직에 있어서만큼은 한국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럽게 느껴졌을 뿐이다. 이때부터 나는 일본에서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나는 '슈카츠'라는 공통 관심 화제를 주제로 하여, 유월부터 일본인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기 시작했다. 4월에도 매일 저녁마다 기숙사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며 친구들을 많이 사귀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깊어진 것은 '슈카츠'라는 대화 주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느낀 것은,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의 성격이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일본인의 성향과는 조금 멀다는 것이었다. 기숙사의 일본인 친구들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모두 활발한 성격에 말도 잘했다.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물론 외국인과 함께 지내는 기숙사에 지원한 일본인 학생들이라 다른 일반적인 일본 학생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숙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가도 나는 젊은 일본인 친구들이 한국인의 성격과 비슷한 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유인즉슨 나는 2009년에 홈스테이로 몇 주간 사이타마 지역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만났던 일본인들과 오카야마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의 젊은 학생들이 우리가 편견처럼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의 이미지—조용하고 차분하며 집단을 위해 자신의 의견 표현을 인내하는 경향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폐쇄적이기도 한—와 어찌면 꽤나 멀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일본에 온 이후로 가장 인상적으로 여겼던 부분이기도 하다.

오카야마에서의 1, 2학기(성균관대의 1학기)를 마친 이후에 8월부터 귀국하기 전 약 한 달 동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내내 여행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

다. 8월 초에는 도쿄에 가려고 했는데 오카야마와 도쿄의 왕복 신칸센 비용보다 오카야마에서 대만 사이의 왕복 항공권이 만 오천 엔이나 저렴하여, 뜻밖에 대만으로의 여행을 다녀왔다. 일본의 비싼 교통비를 처절하게 실감한 사건이었다. 유럽 권역에서 온 친구들마저 일본의 교통비에는 혀를 내둘렀다. 한국인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비교적 여행을 덜 다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비싼 교통비도 그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여행을 하고 매일 친구들을 만나고 시간이 훌쩍 흘러 나는 2016년 8월 24일 약 5개월 정도의 일본 생활을 마치고 간사이공항에서 에어부산 비행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귀국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언젠가 내가 이 시기를 다시 되돌아 볼 때, 내가 일본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오카야마에서 두 학기 즉 일 년 동안 교환유학을 한다는 사실에 비교한다면, 내가 오카야마에서 보낸 반년은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라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가치관과 미래의 진로 등을 완전히 바꿔 놓은 커다란 사건이었다. 오카야마에 오기 전에 나는 막연히 대학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기도 했고, 불안한 고용 상황에 대해 전해들을 때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는 결심도 했었다. 그러나 오카야마에서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일본어 실력이지만 내가 그 나라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지낼 수 있고 또한 행정 처리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부딪치며 알게 되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세계가 나에게 열리는 느낌이었다. 물론 내게 벌어질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큰 장애물이 없는 이상 나는 일본에서의 취직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 정도로 오카야마에서의 경험이 즉 일본에서의 반년이 내게는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캠퍼스 아시아를 통한 오카야마 대학으로의 교환 유학을 통해서 각자가 얻게 되는 것들은 모두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누군가의 눈에는 나의 결과물이 미미하고 불품없을 수도 있고 나의 관점에서는 누군가가 이룬 결과가 매우 뜻밖일 수도 있다. 물론 나는 당장 이렇다 할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에게 있어서, 진정한 결과는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중·일 삼국의 학생이 만나 소통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던 경험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나, 짧은 시간 안에 그 짝을 띄워 자신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캠퍼스 아시아에 참여한 모든 학생은 언젠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동아시아 삼국의 우호적 관계를 도모하고 각국의 발전적 미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 CAMPUS Asia 체험수기



오혜인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원  
(사업단 : 성균관대 - 지린대 - 오카야마대)

## CAMPUS Asia 사업단의 주제

저는 중국에 가기 전에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여러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평소 중어중문학과 본전공의 수업 중 문학수업을 많이 들었던 영향을 받아, 중국인들의 삶에 '삼국지연의'가 정말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삼국지연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고전 문학 중 하나이며,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권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삼국지' 열풍을 만든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친구들과 이야기 할 때 '너는 삼국지연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니?'와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삼국지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배우는지, 또한 그 소설이 현재 중국인들의 사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을 자주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대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산(小珊)이라는 친구에게 '삼국지연의를 좋아하니?'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소산이는 어렸을 때 읽었으나 무협이 내용이 자신하고는 별로 맞지 않아서 너무 어려운 책이었다고, 자신은 오히려 중국의 4대 고전 문학 중 '홍루몽'을 더 좋아한다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책'과 같은 존재처럼 중국인에게 '삼국지연의'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찬양 받는 소

설인 줄 알았고, 그래서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속에 삼국지연의의 인물을 한 명씩 가지고 있었을 줄 알았던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 준 대화였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소설을 읽고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중국인들과 함께 얘기하며 '동아시아 고전학을 통한 동아시아적 문화공동성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진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의 주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열풍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띠고 있었고, 그것에 대화를 한다면 한국 가수, 배우, 예능프로그램 이야기들로 더욱 나타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인들과 교류를 할 때면, 처음 만난 사이에 이야기 주제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화가 결국엔 한국 연예인으로 종결되기 쉽습니다. 물론 한류의 위대함과 방송 콘텐츠의 우수성들 역시 자랑할 거리로서 이야기 하다 보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대화가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십거리들 이야기는 한 순간의 재미로 끝나버리기 일수입니다. 저는 문학과 중국인의 삶의 연관성에 대한 궁금증과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며 중국인

들과 더욱 깊은 교류를 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있었기에 제 중국 지린대학교 생활은 더욱 학문적으로 풍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우의회관에서의 생활

제가 생활했던 곳은 지린대학교의 '우의회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인 기숙사였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국적, 인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우의회관에서 접했던 각양각색의 문화 중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종교의 '라마단'이었습니다. '라마단'이란 이슬람력으로 9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출에서 일몰까지 해가 떠있는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행하는 기간입니다. 제 방이 있는 10층에 2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지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총학생회장을 맡았었으며,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마당발 셰이프라는 예멘 사람이었습니다. 셰이프는 평소 그의 리더십 덕분이었는지 라마단 기간에도 역시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의 라마단 때에, 하루의 여러 기도 시간 중 그들은 저녁 9시에 행하는 기도를 가장 거하게 진행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기 30분 전쯤부터 우의회관에 살고 있던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셰이프의 방이 있는 10층으로 올라와 각 층마다 있는 회의실에 모여 책걸상을 한 곳에 치우고, 개인용 카펫을 깔아 다같이 기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 방도 10층에 있었기에 저녁 산책을 나가려 할 때마다 그들이 그들의 신 알라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알라를 그들의 가까이에 부르려는 의식인지 그들은 문을 닫지 않고 기도했으며, 그 중 셰이프는 큰 소리로 코란을 읽는 듯이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중간에 함께 노래 부르기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슬람 무장 단체인 IS가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심지어 저는 기

독교인이었기에 알게 모르게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인 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종교적 의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못마땅하기도 하였으며, 평소 웃고 떠들 때는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회의실 앞 복도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만 했을 때, 그 회의실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아랍어로 된 기도소리 때문에 주도적으로 기도를 이끌고 있는 친구 셰이프가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를 포함하여 한국인 세 네 명과 이슬람 교도인 터키, 예멘 등 여러 사람들과 같이 저녁을 먹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에 대해 평소 궁금한 것이 많았던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터키 사람은 알리프라는 여자였는데, 그녀가 차고 있는 '히잡'과 그녀의 종교에 대한 신념을 들으며 평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소했던 저를 비롯한 나머지 한국인 친구들이 이슬람교도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깊은 이야기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온전히 그들의 종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수능 공부를 하며 글자만으로 접했던 이슬람 문화 중 '라마단'을 실천하는 아랍인들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였고, 이슬람 교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며 그들은 나의 종교인 기독교를 존중하며 서로의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그 깊은 밤이 제 기억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지구에 모여 살고 있었구나, 라는 감정을 불현듯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만약 이렇게 지린대학교에 오지 않았더라면 절대 겪지 못했을 이 경험에 감격의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과 같은 같은 아시아 권의 사람을 넘어서 더 다양한 국적, 인종의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항상 그들과 이야기하며 말로만 접했던 지금이 '글로벌 시대'라는 것을 몸소 체감하며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홀로 우뚝 서게 되다

지린대학교에서 한 학기 생활을 마친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홀로 중국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봐도, 제게서 어떻게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 여행에 대해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특히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전을 꽤나 두려워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낯선 중국 땅에서 홀로 여행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니, 제 평탄하고 재미없었던 지난 인생을 비추어 봤을 때,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종강하고 떠나기로 한 중국 여행지는 시안(西安), 성도(成都), 충칭(重庆), 칭따오(青島), 베이징(北京) 이렇게 다섯 나라였습니다. 개수로 봤을 때 몇 개 안되지만, 여행 경비도 충분하지 않았고, 중국의 땅은 매우 넓었기 때문에 이 도시들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한 비행기가 아닌, 기차 이용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기차를 타도 꼬박 열 몇 시간은 기본으로 타고 가야 했기에, 여학생 홀로 그 밤 기차를 서너번 타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기차에 타서는 제 짐을 사수하느라 밤에 잠도 잘 자지도 못했고, 혹시나 짐을 누가 훔쳐갈까 걱정이 되어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차 복도에 콘센트가 있어 핸드폰을 충전하고자 복도에 나왔더니 금세 다른 중국인 청년들에게 제 자리였던 1층 침대는 그들에게 점령당해서, 혹시나 외국인 여자아이를 무시할까 봐 일부러 입 뺨고 안하고 있던 저는 '나 누워서 쉬고 싶으니 좀 비켜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불편한 자세로 기차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방인인 티 안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지만, 커다란 캐리어를 어리숙하게 질질 끌고 옆으로 블록 튀어나온 백팩 하나까지 더해 등에 버겁게

멘 저는 누가 봐도 이런 기차가 초행인 낯선 외국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밤기차 중 卧铺(위푸)를 탔을 때 한 번은 저를 제외한 저와 같은 칸에 계신 5분이 모두 중국인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긴장하고 있는 걸 느꼈는지, 같은 칸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저를 배려해주시기 위해 맨 아래 칸을 사용하고 있던 제 침대를 한 번을 밟지 않으셨고, 힐끔힐끔 쳐다보시지도 않으셨으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안 후부터는 대단하다고, 어디 가는지, 얼마나 중국에 있었는지 등 친숙하게 말 걸어주시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기차여행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기차를 타면서는 단 한번도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이 성, 저 성을 돌아다니다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그 넓은 중국 땅을 누빌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서야 생각해 보면 제가 결코 겁자기 용감해져서도, 제 중국어 실력이 늘어서도 아니라, 짙어진 짐들이 다소 버거워 보이고, 얼굴에 표정이 다소 역력한 한국인 여대생에게 친절함의 손길을 내밀어준 한 명의 중국인들의 도움 덕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여행의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여행의 첫 코스인 시안을 가기 위해서 장춘에서 베이징을 거쳐 시안으로 가던 중, 베이징이 고향이어서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옆자리에 앉은 한 청년은 그렇게 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려서는 제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제가 시안행 기차로 갈아타러 베이징의 다른 역으로 갈 때 수많은 인파를 뚫고 제 대신 지하철 표도 끊어주고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 청년 이외에도,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나 자신의 조카를 자랑하시고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며 고향에서 직접 만들어 온 수제 열쇠고리를 주시던 청소 아주머니, K-pop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스스로 한국어를 독학하고 저를 충칭의 유명한 휘귀집에 데려가 휘귀를 사주신 여 선생님, 여자 아이 한 명이

혼자 와서 방을 예약하길래 혹시나 위험할까 봐 2박 3일 걱정하셨다는 성도(成都)에서 묵은 숙소의 사장님, 등등 제가 드넓은 중국 땅에 홀로 우뚝 서 있던 모든 순간에는 그렇게 수 많은 중국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현재 한국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시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시끄럽다, 예의가 없다' 등등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일단은 중국인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시선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다녀온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적지 않게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참 잘 해줬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모습이 반성된다. 한국에 온 중국인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할까' 등의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무수한 도움을 받으며 중국의 정을 느끼고 온 것처럼, 한국 땅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인들도 한국의 친절과 정을 많이 느끼고,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이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제가 한국인과 중국인의 중간의 다리가 되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가슴 벅찬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중국은 워낙 대륙이 넓어 자동차보다는 빠르고 편하게, 비행기보다는 느리지만 값싸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기차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오가며 서울역을 바깥에서 본 적도 있었고, 내부에 들어가 본 적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에 있는 가장 큰 기차역 하나의 크기를 능가

하는 기차역이 중국의 그저 한 평범한 도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여행을 하며 이 곳 저 곳 돌아다닐 때, 어느 도시를 가나 느꼈던 공통적인 감정은 하나의 성(省)이, 또 어떨 때에는 하나의 도시가 대한민국과 비슷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즉 중국 하나의 도시에 대한민국의 전체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중심지에 가면 내가 마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서울에 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해안가에 가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제주도과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해안가 주변의 시가지에 가면 우리나라의 가장 발달한 해안 도시인 부산에 와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느낌과 동시에 서울역의 규모와 시설을 능가하는 듯한 기차역을 쉽게 발견 할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중국의 발전속도와 넓은 대륙이 주는 장점이 저를 아주 많이 자극해주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많은 인구 수와 풍부한 지리적 요건을 더욱 잘 활용하게 된다면, 그 때에 중국은 지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지닐 것은 분명한 미래였습니다. 그러한 중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미래와 발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중국의 하나의 성(省)보다 작은 면적일 수도 있는 한반도에서 인구 수 역시 중국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모습대로 이제껏 성장해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며 기대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국 어느 도시를 가던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각양각색의 도시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 흥미로웠고, 그래서 매 여행지에서 그 날의 일과가 끝나면 밤이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며 다시 한번 그 도시를 훑거나, 산책을 하며 여러 생각을 할 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중국의 지금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발전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역시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을 한국과 그리

고 뿔레야 뿔 수 없는 일본까지 함께 생각해가며 저의 넓은 포부를 다짐해보고 생각해보며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펜을 잡고 이 때의 감정을 기억하며 부푼 꿈을 안고 공부할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 각지를 여행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고, 새로운 자극을 불어 넣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CAMPUS Asia 체험수기



박성연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업단 : 서울대 - 히토쓰바시대 - 북경대)

## Intro

내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한일중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은 'Doing Business in Asia 2016'(이하 DBiA 2016), BeST 로 올해는 동아시아의 메가시티(Mega City in East Asia)라는 컨셉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었다. 재미있게도 '최고'란 의미의 'the Best'와 'BeST: Beijing, Seoul, Tokyo' 중국, 한국, 일본 각각의 국가 중심의 앞 자를 딴 이름의 'BeST'를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었다. DBiA 2016 프로그램은 베이징과 서울, 도쿄 각 도시의 MBA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당 10명의 인원, 즉 총 30명이 함께 이동하면서 세 나라와 도시, 주요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업(Lecture Session), 회사 탐방(Company Visit), 그룹 프로젝트(Group Project Session), 문화 프로그램(Culture Program) 등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다채로운 경험과 심도 있는 체험 학습이 용이했다.

## Modules

▶ 비상하는 대륙의 중심 도시: Beijing  
베이징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도심으로 오

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전통의 도시이다. 중국의 상하이나 쑤저우, 항저우 정도만을 여행해 본 나로서는 베이징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정글만리'와 같은 책을 통해 접해본 기억을 더듬으며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대륙의 도시답게 베이징의 베이징대학교는 학교를 구경하러 온 중국 사람들의 행렬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의 캠퍼스를 자랑했다. 베이징대학교의 캠퍼스 투어로 시작된 DBiA 2016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그 규모와 새로움이 더해져 많은 시선을 사로잡았다.

베이징 모듈의 프로그램은 소화가기 알맞은 정도로 진행되었다. 4개의 수업과 2번의 기업 탐방이 이루어졌고 말로만 들어오던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갖았다. 수업은 일반적인 MBA 수업 같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들을 수 있었고 기업 탐방도 무난했다. 아무래도 베이징 모듈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직접 그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 만리장성과 자금성 같은 킬러 프로그램이나 사람들, 음식, 거리 풍경 등이 아니었다.

▶ 오랫동안 살고는 있지만 늘 낯선 도시: Seoul  
내가 살고 있는 서울 모듈은 익숙한 채로 시작은 되었다. 하지만, 종결은 역시 낯선 도시 서울을 아로새

기는 경험으로 끝이 났다. 여기서 낯설다는 것은 여전히 공부하고 연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박쥐 혹은 샌드위치처럼 중국의 이것과 일본의 저것이 섞인 애매한 느낌이 있다. 그러한 애매함은 세 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도 성격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뭔가 신선하고 흥미롭지만 이렇다 할 특색이 없는 나라, 한국 서울 그리고 한국 사람들. 서울대학교에서 호스트가 되어 수업을 했던 서울 모듈 시기에는 이러한 점들을 다양하고 빠져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 모듈의 프로그램은 수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2번의 기업 탐방도 더해졌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서 철저히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 중심적인 모듈이 아니었나 싶다. 덕분에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다른 교수님들을 매일 접하면서 양껏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 모듈에서의 교재는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서울 모듈을 돌아보면 많은 키워드들이 스쳐지나간다. ‘스마트 시티’, ‘한류’, ‘삼성’, ‘기업문화’, ‘IT’, ‘정부’ 등이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익숙한 이 키워드들은 결국 참 낯설다. 특색과 전통을 찾고 의미를 만드는 연구가 우리 서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 가장 비슷하지만 가장 다른 색채의 도시: Tokyo

개인적으로 이번 일본, 특히 도쿄 여행은 10번째를 넘어섰다. 그래서 더 이상 특별하지도 새롭지도 않은 상태에서 DBiA 프로그램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늘 주변에 배울 점이 존재하는 도시였다. 어떤 것을 굳이 느끼려고 몸부림 치지 않아도 체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점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도시이고 모듈 체험이었다.

도쿄 모듈은 도쿄의 상징처럼 미니멀 하면서도 다채로웠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임팩트 있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식화된 구조처

럼 수업들과 탐방 등 도쿄 모듈에서 행해진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전체 코디네이터를 맡으신 마이클 교수님께서 전체 수업을 리드하시며 하나부터 열까지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다. 오히려 너무나도 섬세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와 수업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셀 수 없이 많은 기업 탐방이 이루어졌다. 그 노고와 정성에 정말로 감사했지만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으로는 조금은 과부화된 상태로 임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서울과 가장 비슷하지만 가장 다른 색채의 도쿄를 마음껏 느끼고 한국에 돌아 올 수 있었다. 하지만 분명 뚜렷한 색깔이 존재하는 도쿄가 부러웠다.

### Impressions

이 프로그램의 가장 좋은 점은 각각 3 도시의 대학교와 기업들을 방문하되, 현지 MBA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점이었다. 대학교 탐방 및 기업 방문은 여타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에서도 흔히 진행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DBiA는 현지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었다.

먼저, 해당 학교의 진짜 수업을 경험할 수 있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흔한 학교 소개가 아닌 평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느끼고 배웠다. 또한, 현지 학생들을 포함한 기업 방문은, 단지 영어로 몇 마디 설명하는 흔한 IR 이 아닌, 해당 국가 학생들과 실제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어떤 포지셔닝과 실적 및 이미지를 구가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탐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세 도시의 학생들과 함께 그 국가의 실제 모습을 체험하면서, 나는 향후 세 도시에서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펼쳐 나갈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선 내가 현재 창업 활동을 통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

고자 하기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성향과 실제 생활 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파악하였다.

첫 번째로,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화사상’을 실제로 성격에 내재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국민 생활 수준이나 문화 수준에 있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더 이상 ‘Made in Korea’나 한국의 문화, 생활 수준을 동경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국 제품이나 브랜드, 문화, 생활 수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으며, 일정 부분 한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까지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월한 한국 제품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고 진출하는 컨셉이 아닌 것이다. 내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 콘텐츠의 독창성과 가치 자체로 어필해야 하기에, 한국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중국 소비자들의 성향과 특징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더 이상 한국 제품 및 문화의 전파라는 컨셉만으로 공략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그 이면에는 중국 시장의 거대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 공산국가라는 제도적 어려움과 카피캣에 대한 규제 미비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시장이 한국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절실히 체감하였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대기업은 중국에서는 한 개의 성 안에서도 몇 십 개는 있는 흔한 회사였다. 즉, 시장 규모 자체가 비교도 할 수 없이 거대한 것이다. 또한, 근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수와 그 부의 규모는 정말이지 평소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였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 규모와 소비 규모를 공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업을 영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중국 시장 진출 및 공략은, 문화 콘텐츠 및 제품 사업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이와 달리, 일본 히즈토바시 대학교 생활과 도쿄 모듈의 탐방은 말 그대로 ‘Well Made’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 중국이 그 시장 규모와 부의 규모에 있어서 깨달음을 주었다면, 일본은 정말 고도로 다듬어진 ‘Well Made’ 기업이 어떤 것인지 시사점을 주었다. 잘 짜여진 사업 전략과 디테일한 소비자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담백하면서도 효율성 높은 기업문화와 사무실 등의 모습은, 규모의 성장 맞은편에 존재하는 ‘Well Made 기업’에 대한 배움을 가능하게 하였다.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기업 전략, 투자, 인사, 기업 문화 등 전 부문에 있어서 지나치게 영성했던 것이 아닌 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DBiA 2016를 통하여 나는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향후 사업 진행 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견고한 ‘Business network’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들은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아이টে에 대한 현지 반응을 가감 없이 나타내주는 동료들이었다. 또한 현지 국가에서는 어떤 차이점을 두고 진출하면 좋을지 많은 조언을 들었으며, 향후 현지 사업 진행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약속 받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탐클래스 인력들과 3주 동안이나 교류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 또 가질 수 있겠는가. 앞으로 평생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한-중-일 네트워크의 시작을 DBiA가 만들어준 것이다.

### Outro

캠퍼스아시아라는 국가의 장학사업 덕분에 비상하는 대륙의 중심도시 베이징, 오랫동안 살고는 있지만 늘 낯선 서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가장 비슷하지만 가장 다른 색채의 도시 도쿄까지 3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고,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오카야마 대학 캠퍼스 아시아 체험수기



허요한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원  
(사업단 : 성균관대 - 오카야마대 - 길림대)

오카야마에 도착한 첫날 저녁에는 장대비가 내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오카야마 공항에서 출발한 버스는 오카야마 대학교 체육관 건물 앞에서 내렸던 것인데, 그때는 도무지 어딘지도 모르겠는 어둠속을 비를 맞아가며 한참을 걸었다. 여행가방과 옷이 다 젖은 후에야 도착한 기숙사에 도착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방으로 들어서니, 겨우 마음이 놓여 다리가 풀렸던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는 다시 낯설음의 연속이었다. 가전제품, 보일러, 세면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국 언어들로 적혀져 있었고, 작동법도 달랐다. 티비를 켜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속도로 말을 하고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그때 벨이 울렸고, 나는 다시 긴장했다. 문을 열어보니, 같은 버스를 타고 온 중국인 유학생이었고, 나에게 보일러 작동법을 물어보러 온 것이었다. 온갖 단어들이 머리 속을 휘저었다가 이내 새하얗게 되고, 온갖 손발짓이며 문법도 맞지 않는 단어조합으로 겨우 설명하고 돌아와 다시 다리가 풀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겨우 면접을 통과하고 왔지만, 나는 일본에 대해 잘 몰랐고, 그리 큰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았었다. 다만 석사 논문을 쓰고 나서, 일본의 문학과 사상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겨우 든 상태였다. 그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정말 '용감하게' 도전했다. 이

전까지 유학을 해본 경험도 없고, 여행으로 외국에 긴 시간동안 나가본 경험도 없었다. 다만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딪혀본 것이었다. 그 결과로 첫 몇 달은 입에서 단어가 떨어지지 않아 본의 아니게 매우 조용한 학생으로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튜터였던 오츠키씨의 끝없는 인내와 도움으로 조금씩 말을 떼기 시작했던 것도 기억난다. 오츠키씨는 자기도 미국에 6개월 정도 갔을 때 말을 하나도 못했었기 때문에 고생했다며, 나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했고, 언제나 내게서 말을 이끌어내고 경청해 주었다.

마문은 내가 일본어를 말할 수 있도록 강제로 이끌어준 친구였다. 그는 기초 일본어 수업에서 만난 오카야마 대학원 유학생이었는데, 언제나 수다스럽고 친절해서 나를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다. 그를 통해서 오카야마에 있는 무슬림 회당도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교토를 함께 여행하기도 했다. 헤어질 때쯤에는 그의 나라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에 대해, 서로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귀엽게도 그는 엄격한 그의 일본인 선생님에 대한 토로도 자주했다.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교류하게 된 마호, 신짱, 미리가 초대해 줘서 타코파티에 갔던 것, 운상까지 와서 휘귀와 나베 파티를 했던 것도 즐거운 추억이다. 신짱도 대학원 수업에서 나를 많이 도와

줬는데 함께 보러간 고니시 유키나가에 대한 연극에서, 신짱은 감동받아 울었는데 나는 내용이해를 다 못해 왜 우냐고 물어봤던 기억도 난다.

하지만 내가 오카야마 대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니시야마 선생님의 근대문학 수업이었다. 대학원 수업이었으므로, 학생이 하루 수업 분량의 발표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나는 다이쇼시기의 시라카바파 문인들 중 야나기무네요시에 관심이 있어서 그의 글을 준비했다. 열다섯 페이지 정도의 글이었지만, 옛문체의 글이었고, 내 독해력이 아직 그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시라카바 잡지의 복간본, 야나기무네요시 전집, 그리고 근대문학 선집본을 비교해가며 새벽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사전 찾아가며 보았다. 요코가키(横書)가 아니라 다테가키(縦書)로 읽고 써야했기 때문에 배는 힘들었다. 그렇게 준비해 간 중간 레포트에서 기본적인 논문 작성법을 틀리고 지적 받았을 때는 (물론 한국의 논문 작성표기와 약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절망스러웠지만, 공부를 하는데 있어 기본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특히 저자의 글에 드러난 주요 개념어를 사전과 참고문헌 등을 인용해서 정리를 한 다음 본문을 써야 했는데, 그렇게 단어 하나를 위해서 세, 네 개의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가며 씨름했던 기억이 즐겁게 남아있다. 그때 놀란 것은 생각보다 일본의 사전이 개념어 정리가 잘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의 개념어 설명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하는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공부한 글이 야나기 무네요시의 「혁명의 화가」였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민예가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 시라카바파에서 외국의 미술가들(특히 후 인상파주의 화가들과 로댕)과 윌리엄 블레이크의 예술론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근대적 주체의 형상으로 '나'와 '청년'을 내세운 그의 글은 그간 '회화의 약속 논쟁'과는 별개의 글로 간주되었지만, 실제

로 읽어보니, '회화의 약속 논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글로 판단되었다. '회화의 약속 논쟁'을 통해 일본의 미술계에는 후기 인상파(혹은 후 인상파)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회화 형식의 변화를 통해 근대적 '개인'의 '내면의 표현'을 추구했다는 점을 두고 볼 때 「혁명의 화가」는 그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내면을 드러내는 방법론으로 제시된 '순수경험'은 니시다기타로와 윌리엄 제임스의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들 시라카바파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이 대정시기의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민주주의 운동의 영향아래, 개인의 자유와 세계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천황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였으며, 국가주의에 반대하여 기독교적 신앙론을 실험하기도 했고, 야나기무네요시의 경우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오카야마대학에서는 '공통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학생들의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다. 정해진 답이 없었기 때문에 '공통선'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학생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나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선의 핵심이 우애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다시 바디우가 이야기 한 우애에 연결시켰다. 요약하면 우애는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연대 감각이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우애의 하나의 형상으로 볼 수 없을까 하는 것이 돌아 올 때쯤의 내 생각이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여행도 몇 군데 다녔다. 시라카바파의 수집 작품을 보려고 쿠라시키 미관지구의 미술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모네의 작품과 이우환의 작품을 보려고 나오시마에 가보기도 했다. 오사카의 해유관과 고베에서의 화교시장, 교토에서 걸었던 철학자의 길 등도 기억에 남지만, 도쿄 구단시타에서 천천히 걸어갔던 아침의 야스쿠니 신사의 풍경과 박물관은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오다이바의 호텔에서 저녁에 만났던 술 취

한 일본인 아저씨도 기억난다. 라이터를 빌린 아저씨는 다짜고짜 여자 친구랑 같이 왔냐는 등, 몇 살 이냐는 등을 물어보더니,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위안부'를 아냐고 물어봤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서 말을 더듬었는데, 그는 혀가 꼬인 말로 말했다. "마음이 아파." 무슨 말을 더 이어야 할지, 이전까지 장난처럼 나왔던 대화들이 괜히 어색해졌다. 나는 "그렇군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유쾌하게 헤어졌다.

그리고 귀국해서 보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경주지역에서의 지진과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교토에서 보았던 작은 집회를 생각나게 했다. 후쿠시마 근처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원전반대 시위를 하던 것이었는데, 당시 동일본대지진의 5주기가 가까워오는 시기였다. 사람들은 집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시위자들은 유쾌하게, 또 열심을 다해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최근의 성주지역 사드배치에 관련해서도, 다시 오키나와의 사례가 비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에 대한 인식에 대한 동질감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현대사는 많은 문제점과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아시아의 '청년' 담론은 캠퍼스아시아를 통해 새롭게 부활할 수 있을까?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이국의 문화, 사람, 학문을 경험함으로써 피부로 얻어지는 감각은 참으로 소중한 것 같다. 그러나 더불어 그 경험이 진정한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해의 출발은 현대에 청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함께 고민하는 시야의 확장에 있다고 생각했다.

몇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려니 손에서 빠져나가는 물처럼 다루지 못한 날들이 많이 있다. 아직 일본의 친구들에게 잘 돌아왔고, 정말 바쁘게 한학기를 보

내고 있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귀국하고 보니 몇몇의 친구들과 추억이 남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의식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나에게서는 귀국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이 확실하게 생겨났다.

## ESSAY for CAMPUS Asia 2016



Ning Yiping 북경대학교  
(사업단 : 서울대 - 북경대 - 동경대)

This is my last year in CAMPUS Asia program. Almost at the end of the last semester aboard, there are numerous precious memories I can share with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is program. Travelling and studying in East Asia countries, making friends with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gaining insight of the societies in all these three countries may be the highlight we talk about most, but you will experience even more. Here are the recordings of my life in Seoul.

### Living with A Local Lady

The dormitory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quite competitive, so if you want to make sure you can get admitted, never make the same mistake as I did. I chose the single room before getting the email about the details of dormitory application. As a result, I was rejected and suggested to find a place outside the campus. The staff in charge of our program at that time was very considerate and helpful, and she offered some website for

reference. Even though, since I cannot speak Korean at that time, it was still pretty difficult for me. Luckily, I got some help from my father's friend and found the place I live now. It's a Korean style house with a beautiful small yard.

The house owner is an old lady who lives by herself. Since her children have already married and moved out, she used the extra room for rent and get some company. At the first, I was a little worried about living here, because I don't know how I should communicate with her since we don't speak any common language. But soon it turned out to be an interesting and worthy experience. I still remember the first night I moved in. I tried to use the bathroom to take a shower, but the controlling panel is in her bedroom and all the instructions are in Korean, which forced me to learn how to say some simple words, like hot water and bathroom. After that, we talked pretty often, though my Korean didn't get much progress. However, it's surprising that we can understand each other from the facial expression

and body language.

The lady is very warm-hearted and takes care of me and the other tenant just as her own granddaughters. Sometimes, after she cooks, she will knock on our doors and ask us to join her. For the laundry, we also share. For example, if anyone comes back early, she will collect the clothes and fold up for others. It feels like living with family members. Another enjoyable thing for me to live here is that I can learn how to cook Korean dishes. Just as other grandmother, the old lady has lots of secret recipes, from making kimchi to preparing fancy cuisine. At times, I join her to make kimchi, and sometimes we harvest the vegetables in our small yard. That's really fun!

### Exploring SNU

Borges said, "I have always imagined that Paradise will be a kind of library". That is exactly the words across my mind when I went to the library of SNU. Among the three universities, the library in SNU is the one I like most. Of course, it is very spacious, well-decorated and equipped with comfortable chairs. As the building is very high, you can enjoy the beautiful view of Seoul city on the top floors. And there is a roof garden on the sixth floor. Every time I saw it through the window from above, I just cannot help imaging the scenes in the Korean drama.

Besides that, SNU also provides lots of interesting courses for you. And the best thing as an exchange student is that you can choose whatever class you like. For example, I take the

introductory Korean music class and also audit a class about photography. If you are able to understand Korean lectures, there are more interesting classes you can take, like fashion design. And the courses in GSIS are also of high quality. Most of the professors are either experienced experts in their fields or outstanding academicians. For example, the professor for the course China's Banking and Finance, who has lots of experience dealing with Chinese businessmen and officials, always surprise me with his knowledge of Chinese economic history and the details about China's current economy. As a respectful professor, he also has lots of links with Korean economic officials. With his arrangement, we were very lucky to visit the Bank of Korea and one of the Monetary Policy Board Members was invited to give a lecture to us about his work and insights of current Korean economy.

### Campus Asia Activities

The activities are well organized with the devotion of our tutors. During this semester, we have round table, one-day outings and field trips, through which we get to know more about Korean culture and society.

### Round Table

From the beginning of this semester, we have the Campus Asia round table discussion every two weeks. All of students in our program are divided into four groups and each group is required to choose a topic for presentation for

one discussion. The topic ranges from national perception of other countries to FTA in East Asia countries. Our group chose population aging as the theme of our presentation. By comparing the aging problem in East Asia and the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exhibiting the situations in each of the three countries, we attempt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is problem and corresponding policies. Every time after the presentation, we will have discussion about the issue for that week. It's quite fascinating to hear opinions and observation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 One-day Outings

For the first outing, we went to the national war memorial and KBS station. A volunteer in the memorial guided the tour and he introduced the history of the war between Japan and Korea as well as the Korean War. It was quite interesting for me to see that many documents, including the dairies of soldiers, were written in Chinese, while now Chinese characters can be rarely seen in Korea, except some advertisements designed for Chinese customers. Another detail that caught my attention was the map showing that after the outbreak of Korean War, South Korea government retreated to Busan. At that time, the movie Train to Busan was very hot. When I saw the map, I got to know better why Korean people chose Busan as their final battlefield when zombie apocalypse happened. At the afternoon, we went to the KBS station, where numerous popular TV dramas and programs are made.

For the second outing, our tutors helped us get the admission to see the live show of famous Korean music program called Inkigayo. It was my first time to see this kind of show with many fans of the singers for that day. Every time some singer came out, the fans will be thrilled and scream. Even you are not familiar with those idols, you can tell how popular they are in Korea according to the reaction of the audience.

### Field Trip

Besides the outings, we also had a field trip to the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demilitarized zone is the first place my Korean friends recommend to me, I had a pretty high expectation of it, imaging that it can be kind of dangerous with soldiers standing face-to-face with their guns. But it was quite different. Quite big a portion of the DMZ was developed for sightseeing and it's very safe to walk there. What is impressive for me is the subway and train stations built in DMZ. According to the tour guide, they are used to connect to North Korea once they become unified. At that time, you can really feel the sorrow to be separated and the desire to unify.

Because the trip lasted for two days, we stayed there in a local house. The house owner prepared delicious barbeque and traditional Korean dishes for us, with the vegetables grown in his own yard. One of the Korean students told me it's their tradition to continue the talk after dinner during this kind of field trip, so we got to the living room and stated to play games that night.

Actually that was the first time for all of us to meet and get to know each other well, because some of the Korean students joined this program about one month after the semester started and some of us hadn't really talked before. It's a really nice opportunity for us to communicate and enhance the friendship. At the second day, we visited a local castle as well as the temple in it, and then we got back to Seoul.

### Afterword

Living in a country for a long time, you can gradually understand local people's concern and the way they think. To enhance the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s the first and vital step. I think that is the meaning of our program and where we can contribute in the future.

# CAMPUS Asia 체험수기



허효진 동서대학교  
(사업단: 동서대 - 리츠메이칸대 - 광동외어외무대)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설명회를 듣고 많이 힘들 것이라는 짐작은 하였다. 설명회에서 프로그램은 한·중·일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평범한 1학년 학생들처럼 '대학 생활'은 즐기지 못할 것이며 다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약간 겁을 먹었지만, 영어를 비롯하여 일본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며 동아시아를 이끄는 세 나라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는 '전문가'가 되어있을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니 기대가 되었다. 그래서 동서대학교 CAMPUS Asia에 참가하여 긴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캠퍼스 아시아는 한국의 동서대학교, 일본의 리츠메이칸 대학교, 중국의 광동외어외무대학을 순환하며 세 나라에 대해 공부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차세대 리더양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HSK, JLPT, TOEIC 자격증 모두 최고점수를 받아야 프로그램의 수료증이 나온다. 나와 친구들 대부분은 CAMPUS Asia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중국어나 일본어의 기초조차 모르는 학생들이었다. 물론 이미 자격증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지만 한두 명일 뿐이었다. 학기 중 모든 언어과목은 2주마다 수시평가를 쳤고 한 달에 한 번씩 20명이 일렬로 세워진 등수가 나왔다. 익명이었지만 학번만으로 누가

몇 등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안일해 질 때마다 다시 긴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은 날은 일주일 내내 시험 준비를 하며 숙면의 욕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곤 했다. 특히 일본어나 중국어는 한자가 주류를 이루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자에 취약한 나에게 시험들은 매번 고통스러웠던 관문들이었다. 단어를 쓰고 또 쓰며 외웠지만 뒤돌아서면 까먹었다. 얼마나 글자를 많이 썼는지 샤프를 받치던 내 오른쪽 중지 손가락의 중간 안쪽 뼈 부분에는 강낭콩만한 굳은살이 자리 잡혀있다. 시험과 과제가 겹치는 날은 고도의 인내력이 필요해지는 날이 되었다.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아 이런 날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니 몸도 마음도 지쳐 슬럼프를 겪는 시기가 왔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캠퍼스 아시아에서 제일 암흑의 기간은 이 시기였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였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에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아줌마 아저씨들은 나만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연거푸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그리움'과 '후회'가 보였다. 그 시절 조금 더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 보았으면 이라는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 순간 부끄러워졌다.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피 같은 시

간을 흘러 보내고 있었고 희소한 기회가 나에게 찾아와 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꿈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중간에 큰 산을 만나 고비를 겪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속담처럼 매일 중국어 단어를 30개씩 외우기 시작했다. 처음 중국어의 4성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노래 소리 같아서 재미있었다. 일본어는 문법과 한자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일본어를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시즈오카에서 일본인 대학생 친구들이 한국으로 와서 '행복'에 대해 토론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앉은 테이블에 일본인만 3명이었다. 그 순간 겁을 먹었지만 한국의 고기 문화를 일본 친구들에게 꼭 설명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말을 먼저 시작했다. 순간 내 자신에게 너무 놀란 것은 나는 일본어를 그다지 못하지 않았다. 물론 모르는 단어나 문법이 많았지만 사전에서 찾아가며 약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어로 대화를 하였다.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는데 어려운 점을 느끼진 못하였지만 다만,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일본인 친구들과 고기를 먹으며, 한국의 씹 씹먹는 문화를 가르쳐 주며 배우게 된 것이었다. 뿌듯하였다. 슬럼프를 물리치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다. 슬럼프의 기간은 마냥 나뻐던 날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CAMPUS Asia에서 공부하며 동아시아, 특히 일본을 바라보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냉랭한 부분이 많아 나를 포함한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들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지만 일본에 대해 공부하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인'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 내가 만났던 일본인 친구들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었다. 물론 역사적인 문제를 깊이까지 파고들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

였지만, 나는 이제껏 혹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속 깊은 대화가 없었을 수도, 한국의 입장에서만 그들을 바라본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았다. 그들은 한국인들 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성숙한 예의 문화를 갖추고 있었다. 일본과 한국은 문화가 비슷해서 처음 만났어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비슷한 문화 속 차이점들을 발견하며 신기하기도 하고 포근하기도 하였다. 일본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 나라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다.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황하문명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역사와 다양한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문화의 꽃이라 칭할 수도 있는 중국은 과거 우리가 '왕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한국에게 많은 영향을 준 나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중국산, 공기 오염 그리고 중국인들의 매너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중국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16년 11월 18일 우리 한국 캠퍼스 아시아 팀은 중국 광둥의 어외무대로 필드워크를 갔다. 내년에 우리가 유학을 하게 될 곳을 보았고 중국 문화에 대한 주제에 대해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중국은 더럽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으나 내 눈에는 '더럽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았다. 중국인들은 말을 크게 하는 성향이 있어 자칫 화를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으나 행동은 매우 친절했다. 부산 사람들이 사투리가 세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가끔 우리들이 화를 내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한다던데 똑같은 이유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중·일에 대해 공부하며 오해를 풀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니 문득 이 세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까운, 단짝 친구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는 EU보다도 더 막강한 아시아 공동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외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갔다. 감사하게도 CAMPUS Asia에서 많은 저명하신 선생님들

께서 우리 학교를 찾아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다. 한번은 일본 관련 외교 연사가 오셔서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300년 전에 외교관으로 활동하셨던 분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나는 이 수업이 매우 인상이 깊었다. 왜냐하면 아메노모리 호슈가 강조한 외교 철학 때문이었다. 그는 '성신의 외교', 즉 성의와 신의의 외교라는 뜻으로 문화 상대주의를 강조하였다. 그에 관해 제일 놀라웠던 것은 옛날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그가 강조한 '성신'이라는 상대주의적 외교의 자세는 현재에도 가장 중요한 태도이지만 행동으로 지키는 어렵다. 나는 그러나 아메노모리 호슈는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나라를 평가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라고 받아들였다. 내년 중국과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는 나는 두 나라들의 많은 문화들을 접할 것이다. 유학생 또한 작은 민간 외교관이라 생각하고 나 또한 아메노모리 호슈처럼 다른 문화들을 인정할 수 있고 겸허히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일본 대사였던 '권철현' 선생님께서 우리들을 방문해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대해 강의를 주셨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감동'이었다. 나는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였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간절하지만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책임감이 그저 무서웠던 소녀이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는 전 일본 대사관에 있을 때 일본에서는 '사소한 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는 말이 있어서 일본 대사로 취임하자마자 대사관의 전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한다.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는 건강검진과 기사 아저씨들의 호칭이었다. 직원들은 10년이 넘도록 건강검진을 원했지만 예산안의 부족으로 매년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전기사들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한국인의 특성상 '대사관 기사'라는 호칭이 민망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즉시 예산안을 재편하여 전 직원들의 건강검진

을 시켰고 대사관의 운전기사에서 주임으로 호칭을 바꾸었다. 그저 사소한 일을 해결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향해 대단하다거나 고맙다고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리더십이란 '사랑'이고 '감동'이라고 하였다. 나의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돈을 위해 리더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감동을 받고 자연스레 나를 따라오게 되어있다는 말이다. 선생님께서는 목표도 중요하다고 하셨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예상 리더십의 자세를 강조하셨다. 선생님께서는 그저 강의만 해 주셨을 뿐이지만 수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내 심장은 거세게 뛰었고 가슴은 부풀었으며 눈물이 떨어졌다. 정확히 무엇이 나로 하여금 큰 감동을 받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하건데, 선생님께서 지니셨던 인생관이 나를 일깨워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이라는 말을 한자로 표기하면 '여행'이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어도, 일본어도 다 똑같은 한자(旅行)로 표기를 하고 있다. '여행'은 발음만 다를 뿐이지 겉으로 보기에, 담고 있는 의미도 같다. 한·중·일 세 나라도 단어 '여행'과 같다. 우리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다. 쌀로 주식을 해결하고,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이용하고, 황색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며, 한자를 이용하고, 같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은 먼 옛날, 한국의 고조선을 거쳐 삼국이 있었을 때부터 중국과 일본과 문화적 교류를 해왔다. 그러나 조선시대, 자본주의 사상이 퍼질 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제국주의를 선포하고 한국을 침략하였고 그 과정에 중국과 수도 없는 전쟁을 하였으며 그 영향의 잔재 때문에 현재 2016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한국은 끝없는 사과를 요구하고 일본은 이미 사과를

했다며 거절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많은 침략과 전쟁 때문에 상처받은 중국과 일본의 사이는 악화되었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다.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우리 세 나라는 함께 성장했던 깊은 역사와 문화적 공통점이 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자국의 나라만을 생각하였지 동아시아의 화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구의 서쪽 땅에는 우리만큼 많은 전쟁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과거에 대해 이해하는 법을 알았고 그 결과 EU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 진정한 한 민족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 동아시아의 차례라고 생각한다. 나는 CAMPUS Asia의 학생으로서 아시아의 EU를 만들고자 하는 큰 꿈이 있다. 그것이 내가 밤을 새가며 공부를 하는 이유이고 외국인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진심이다.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캠퍼스 아시아에서 공부를 하며 '공부의 맛'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부의 맛을 제대로 느껴 보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며, 미래를 이끌 인재가 되기 위함이다.

## 나고야에서의 소중한 경험



송성희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사업단: 성균관대 / 서울대 - 나고야대 - 인민대 / 칭화대 / 상해교통대)

### 교환학생, 그 시간에 대해서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것에 초점을 둘 것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선배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다. 전공공부, 어학공부, 여행, 문화체험, 친구 사귀기 등 교환학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자신이 집중하는 한 가지가 없으면 그 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 조언을 받고 나고야로 갔으면서도, 나는 막상 도착해서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했었으니 일본어를 확실히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전공으로 공부하던 법을 일본에서 공부하는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었고, 여행이며 문화체험도 물론 빼놓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새로운 것이 다 즐겁고 신기하게 느껴졌다.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어렵기는 했지만 재미있었다. 동아리에도 들어보고, 수업 청강도 해보고, 안가본 곳에 가보기도 하면서 비교적 소극적인 나로서는 많은 도전을 했었다. 기왕 교환학생까지 온 김에, 최대한 더 많은 활동을 해보는 것이 나의 미래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

면 한 번도 기숙사 밖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쳐있었다. 내가 간과했던 것은, 내가 외국에서 온전히 혼자 사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나고야대에서의 첫 번째 학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 비하면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지치기는 지친다는 것이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전공공부도 해야 할 것 같고, 어학공부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일본에 기껏 와놓고서 공부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한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도 곁에 없어서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한국에 있던 친구가 해준 말이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네가 외국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열심히 이겨내고 있다는 말이었다. 뭔가 더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던 나의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이렇게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일본 생활을 즐기지도 못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놀 때는 더 즐겁게 놀고, 할 수 있

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것이 그 뒤로 나의 일본 생활의 모토가 되었다. 덕분에 그 다음 학기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더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캠퍼스 아시아로 수학하면서 나에게 남았던 소중한 경험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법률사무소에서의 인턴십

2016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 2주에 걸쳐 카타오카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외국인인데다가 이제 막 2학년을 마쳐 법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은 내가 법률사무소에서의 인턴십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소장님과 변호사님들, 직원 분들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아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우선 첫 번째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막연하게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법조인의 업무가 어떤지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인턴십에서는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소에 가서 변론을 방청하고, 법률 상담에 동석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에게는 어떤 능력과 자질이 필요할지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재판, 소송이라는 것은 웬지 멀게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분쟁을 처리하는 일이다. 여러 상담에 동석하면서, 사람 사는 얘기는 내가 법학을 공부하면서 보아왔던 것처럼 법적 요건이 잘 드러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는 의뢰인들의 복잡한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서 발생한 법적 쟁점을 잘 캐치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일상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법적인 문서로 만들어내야 한다.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인 재판의 흐름과 그 중에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해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사건기록을 접하면서 법학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카타오카 법률사무소는 민사의 이혼, 상속 등을 중심으로 맡는 사무소라서 나도 이혼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여러 법들 중에서도 가족법은 특히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 가치관에 뿌리를 둔 분야라서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서 어렵기도 했지만 더욱 흥미로웠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이혼한 사건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두고 어디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 즉 법의 관할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설명을 들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일한중의 유스코뮤네를 큰 테마로

하는 캠퍼스 아시아에 참여하는 나에게는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법의 차이점을 비교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셋째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민단에서 발간한 민단의 역사에 대한 책을 보면서 재일 동포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또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에서의 법적 논의에 대한 설명도 매우 흥미로웠다. 항상 한국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보아왔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새로웠다.

카타오카 법률사무소에서의 인턴십은 나의 진로 탐색과 앞으로의 학업 계획 수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가져보지 못한 법률사무소에서의 인턴 기회를 일본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뿐이다. 인턴십 중 많이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변호사님, 그리고 이런 인턴십의 기회를 갖게 해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이다.

### 행복했던 일본 여행

교환학생을 간다면 사실 가장 기대되는 것이 바로 여행일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해외여행이라는 부담과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일본에서 일본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국내다보니 부담도 적고, 캠퍼스 아시아의 지원금 덕분에 금전문제도 한결 가볍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1년간 나고야 근교는 물론,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오키나와까지 다양한 지역을 찾아가 여행을 즐겼다.

교환학생 전에도 일본 여행은 자주 다녔었지만, 이번 여행들이 특별했던 것은 함께한 사람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홋카이도 여행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캠퍼스 아시아 4기 다섯 명 모두와 떠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두 세 명



씩 같이 다닌 적은 많았지만, 언니 오빠들과 다 함께 여행을 간 것은 홋카이도가 처음이었다. 같이 예산을 짜고, 어디에 가보고 싶고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이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웠다. 그렇게 다 같이 나고야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난 홋카이도는 하얗게 아름다운 눈의 고장이었다. 삿포로 눈 축제에서 거대한 규모로 정교하게 만든 눈 조각을 보기도 하고, 축제다운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사먹기도 하며 여행 첫날을 즐겼다. 멋지게 만든 대회 참가 팀의 전문적인 눈 조각도 멋졌지만, 동아리에서 참가하거나 개인이 만든, 키티나 스누피 같은 캐릭터 모양을 한 조각들도 아기자기하고 귀여웠다. 비록 다른 것들에 비해선 조금 영성하지만, 하얀 눈으로 열심히 만들었을 것을 생각하면 어릴 때 눈 놀이를 하던 추억이 생각나서 행복해졌다. 그 다음 일정들도 대부분 홋카이도의 자연을 즐기는 것으로 짜여 있었다. 비에이에서 온 세상이 새하얀 설원 위를 달려보기도 하고, 홋카이도에서 난 맛있는 해산물도 즐기기도 했던 시간들이 즐거운 추억이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6개월간 함께 지낸 다섯 명이 다 함께 떠난 여행이라서 홋카이도 여행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일정을 마치고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마음이 담긴 짧은 카드를 주고받기도 하고, 지금까지 다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 돌아가서도 친하게 지내자고 약속

했었다. 캠퍼스 아시아에서 함께 했던 언니오빠들과는 모두 귀국한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 캠퍼스 아시아 덕분에 좋은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 소중한 일본 친구들

원래 넓은 인간관계보다는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일본에 가서도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걱정했었다. 낯을 가리는 편이라 처음 보는 외국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캠퍼스 아시아라는 계기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일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캠퍼스 아시아에서 추천해준 튜터-튜티 관계로 만난 야마시타 린 상, 토코로 사야카 짱과는 각각 반 년 간 매주 한 번 이상은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린 상은 취학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어, 나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은행 업무며 행정 처리, 고지서 읽기 등 사소한 것까지 알려주어서, 나고야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같이 일본의 재판소를 견학하기도 하고, 일본어 작문을 첨삭 해주기도 해서 학업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야카 짱과는 두 번째 학기에 만났는데, 두 번째 학기이다 보니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태라 실질적

인 행정 도움 같은 것은 크게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야카 짱과는 일본어로 꾸준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친구처럼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 이야기, 서로의 나라 이야기, 과제를 하면서 느낀 사회 문제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사야카 짱도 지금 마찬가지로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몇 번이나 만나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캠퍼스 아시아가 이어준 튜터-튜티 관계 덕분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린 상과 사야카 짱 외에도, 캠퍼스 아시아를 다녀온 많은 나고야대 친구들과도 여러 자리를 통해서 친해질 수 있었다. 이런 인연이야말로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내가 얻은 소중한 보물이다.

### 캠퍼스 아시아, 나의 소중한 기억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나고야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돌아왔지만, 나에게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동아리며 학회 활동을 더 할 걸, 아르바이트도 한 번쯤 해볼 걸 등 이 수기를 적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앞에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내가 지난 1년간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생활하며 공부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처음으로 두 학기 모두 4.5 만점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맺고 돌아왔다는 것,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을 보고 느꼈다는 것 역시 내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짧은 분량의 체험 수기에는 다 적지 못한 경험들, 인연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캠퍼스 아시아 전 후로 바뀐,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을 담기에는 책 한 권으로도 역부족이다.

교환수학 중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 캠퍼스 아시아를 비롯한 교

환학생이라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사람들에게,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너무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국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시간은 돌아보면 모두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나는 캠퍼스 아시아에 늘 감사를 느낀다. 앞으로도 캠퍼스 아시아를 통해 한중일의 더 많은 학생들이 나처럼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안고 갔으면 좋겠다.





# PNU exchange program experience summary report



류시 상해교통대학교  
(사업단: 부산대 - 큐슈대 - 상해교통대학교)

Before I participated in the CAMPUS Asia program, I had never imaged that how my life could be and who I would be after graduating from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Due to so many excellent students around me, it seemed that I am always the normal one without any specify. No attention would be attracted on me or anything about me. Therefore, during that period, what I

want to do was: To make sure not make mistakes. However, everything became different when I was lucky to become a member of CAMPUS Asia Program. Suddenly, the hope came to my side and hugged me. I was so grateful to get this chance, which gave a new hope to me and even made my parent be proud of me. From my perspective, it's more important to surprise my parents and



elder sister. The first time I found the value and recognition of myself. After long time expect, I arrived at Kyushu University on 2<sup>nd</sup>, April, 2015.

I still remember how nervous and confused when I arrived at Fukuoka airport. And I took beautiful pictures with so much sakura.

To be honest, it's not easy to adapt the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 I refused to talk with others, the only thing I want to do is stay alone without anyone disturbing. I am so afraid of making mistakes, and I thought nothing would be wrong if I avoid everything. However, the students along with me were so kind and helpful, they invited me to eat together, this made me feel

so good at that moment. And it's a wonderful beginning. We cooked together and went out to eat Japanese food. Food was a vital bridge, which made our heart closer and closer.

And from then on, I started to join in them and we played together. As the time goes, we became familiar with each other, we shared our stories and complained about something unsatisfied. Every morning, we gather in front of gate to go to school together, we discussed questions and cooperation to finish our group homework. Before I took CAMPUS Asia program, I get some introduction of Japan from books and internet. I didn't know which was correct or accurate, but





As is mentioned above, participating in the Campus Asia opened a window in my life and made me learnt a lot.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hat I have found my life target: Be a better man. I have to mention one student name Wu, he is a so excellent and hard-working student, who inspired me so much. He could always study and work with high efficiency, he is capable to make everything well prepared. He is helpful, wise and bright. If you have any problems, you are supposed to ask him for help, he is willing to help solve problem, and he would provide some

now I could tell the truth from wrong, I believed what I have seen in Japan with my eyes. Citizens in Japan are as kind as in Chinese with so much valuable characters. No matter who he is, official worker or shopping guide, he respects his work and spare no effort to finish their job with high enthusiasm. This is what all workers in the world should learn from.

In order to make our life colorful and get to know more about Japan, we went trips during the holiday. It was absolutely fantastic experience for me. I was not only surprised by the culture and scene of Japan, but also the abilities and advantages of my partners. I learnt a lot from them, those characteristic had a deeper influence on me in my whole life.



other help for you if he could not handle with the issue. One day, I found his Japanese improved a lot, though he had no background of it before he went to Kyushu University. At that moment, I started to self-examination. I was always shocked by his ability, why not to work hard and to be a better man.

Life changed a lot after that.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I spent much time to practice my pronunciation, and I could exchange my ideas with classmates and friends freely. And I planned to take part in TOEFL exam, that pushed me to work hard, cause the fee is so high. Moreover, I arranged my time more clearly to improve the efficiency. At the same time, I applied for the internship in a big company to get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unction of a fresh labor. Based on the experience, I could figure out which is more suitable for me, and which aspect is needed to be promoted.

Times flies. The days of my internship with different mission in different company were over. And I thought maybe I should continue my study

to further my professional knowledge, cause the experience of internship make me calm down and think the future more seriously. Therefore, I discussed with Prof. Tanabe and Prof. Wang, they are so professional and responsible for all of us, they analyzed deeply and carefully. Then they offered me several choices after talk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 end, I decided to apply to be a doctor student in Japan. And now I am still working on the issue. I am more confident of myself than before, and I am on the way to become a better man.

Summer school was held in Pusan Univ. this





year, and it's my first time to go to Korea. I was so glad to meet my friends again since we were parted for one year. We discussed our experiments and shared changes in life and interesting stories. We encourage each other to get through the difficulties and we are on the way to be better men. My friends in Pusan Univ. invited us to eat traditional Korean food and visited famous scene.

In the end, I am going to talk about the situation of us. It's so lucky to build immortal friendship with them, and we will support and encourage each other in our whole life.

3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the CAMPUS Asia as exchange student in Kyushu Univ. in

Japan found job in Japan, and they are willing to accept them. After graduating from Shanghai Jiao Tong Univ., they will begin their career in Japan. One student is going to conduct the interview in Japan next month, and I hold the belief that she can make it. For me, I am now applying to continue my study in Japan and I am on the way of being a better man. We are supposed to build fair and 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countries utilizing our own eyes not according to the newspapers or internet.

All of these results and affects are brought by CAMPUS Asia. Definitely, it is really a wise choice to take part in it.

**2016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Essay Book of Korea-Japan-China CAMPUS Asia Program 2016)

---

| 인 쇄 | 2017년 2월

| 발 행 | 2017년 2월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TEL. 02) 6919-3928

| 인쇄처 | 경성문화사 TEL. 02) 786-2999

| ISBN | 979-11-6004-145-3

| 자료번호 | RM 2017-6-741

---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